

부산지역 여성노동자의 노동과정 및 노동지역 노동시장 실태와 당면과제*

— 신발·섬유산업을 중심으로 —

황 한 식(부산대 경제학과 부교수)

〈目 次〉

I. 서론	정 및 노동시장의 실태
II. 부산지역의 경제구조와 여성노동력의 존재형태	1. 조사대상자의 개황
1. 부산지역의 경제구조	2. 노동과정의 실태
2. 여성노동력의 존재형태	3. 노동시장의 실태
III. 부산지역 여성노동자의 노동과정	IV. 부산지역 여성노동문제의 해결을 위한 당면과제

I. 서론

1. 연구의 필요성과 목적

60년대 이래 고도성장의 전개로 피고용 노동자수가 1989년에 이미 1,000만명을 넘어 취업인구의 주종을 이루게 되지만 특히 여성노동자의 양적 팽창은 한층 두드러져 약 400만명에 이르게 되었다. 그 반면에 경제성장의 주역인 여성노동자의 노동 및 생활현실은 저임금·장시간노동·열악한 작업환경과 복지수준 등 한국 노동자들이 일반적으로 안고 있는 문제뿐만 아니라, 여성노동자에게 특수하고 더욱 심각한 문제에 직면하고 있다. 한편으로 노동조건은 여성의 경우 취업·고용·임금차별 등 온갖 성차별과 맞물리면서 한층 열악한 것으로 나타날 뿐더러 모성파괴와 심지어 성희롱·성폭력 등 인권유린마저 뿌리깊

* 이 논문은 1989년도 문체점 문교부 지원 학술진흥재단의 자유공무과제 학술연구 조성비에 의해 연구된 것을 기초로 하였음.

이 얽혀져 있는 것이 엄연한 현실이다.¹⁾ 다른 한편, 사회적 노동과 가사노동의 이중부담으로 인한 노동과 생활의 이중고와 악순환 또한 구조화되어 있는 형편이다. 특히 부산지역의 경우 제3차 서서비스산업과 함께 노동집약적인 신발·섬유산업 등이 주종을 이루고 있어 여성노동자의 비중이 높을 뿐더러 이같은 여성노동문제가 가장 집중적으로 침해하게 나타나고 있다.

이처럼 심각한 여성노동문제의 현실은 무엇보다도 차별과 종속 상태의 개선을 포함하여 생존권보장과 민주적 권리신장, 이를 위한 비판적 정책대안 또는 당면 실천과제에 대한 과학적인 연구를 절실히 요청하고 있다. 더우기 87년 6월 민주항쟁과 뒤이은 노동운동의 비약적 발전에 따라 여성노동자의 노동·생활상의 요구가 광범하게 제기되고 노동운동·여성운동·주민운동 나아가 전체 사회의 민주화운동과 관련 여성노동운동이 본격화되기 시작하고 그 반면 자본과 권력의 공세가 강화됨에 따라 과학성과 전문성에 입각한 대중자신의 문제제기와 주체적 참여가 그 어느 때보다 절실히 요청되고 있다. 따라서 당면과제에 대한 전문적인 과학적 연구는 실천쪽의 절실한 요구인 것이다. 물론 한국여성노동문제는 가부장제적 성차별의 사회구조를 전제로 하는 자본의 여성노동지배, 곧 여성노동에 대한 한국자본주의의 경제·정치·이데올로기적 지배구조에 뿌리를 두고 있다. 따라서 당면과제의 연구와 실천은 구조적인 문제해결의 전망을 지향하는 것이어야 한다. 그러나 과학적 인식과 창조적 실천은 구체적인 현실에 입각할 때만 보증될 수 있는 것이라면 객관적이고도 구체적인 조사연구와 이를 근거로 하는 비판적 정책대안 또는 당면실천과제의 제시가 언제나 증시되어야 할 것이다.²⁾

그러나 여성노동문제의 연구상황을 보면 추상적 차원의 본질론적 논의가 분분한 반면 노동실태연구는 빈약한 실정이다. 특히 부산지역의 경우 여성노동문제가 가장 침해하고 집중적으로 나타나고 지역사회의 민주적 발전에 있어 여성노동자의 역할이 무엇보다도 중요한 위치에 있는데도 부산지역 여성노동문제에 관한 본격적인 연구는 거의 없다고 해도 지나친 말은 아니다.³⁾

이 연구는 이상과 같은 문제의식에 입각하여 부산지역 여성노동자의 구체적인 노동실태를 객관적으로 정확히 파악하여 여성노동문제의 해결을 위한 당면과제를 제시하는 데 그 목적을 두고 있다.

2. 연구의 기본시각

부산지역 여성노동자의 노동실태를 조사연구함에 있어 분석의 기본시각은 다음과 같다. 첫째로, 여성노동문제는 모든 노동자가 일반적으로 공유하는 노동문제라는 자본주의사회

의 기본문제가 여성문제와 결합되어 특수하게 나타나는 것이다. 왜냐하면 여성노동문제의 본질은 여성노동에 대한 자본의 지배에 성모순이 결합됨으로써 노동문제와 여성문제가 통일되어 있는 것이기 때문이다. 그러나 이러한 시각이 결코 여성노동문제의 특수성이나 여성문제를 간과하거나 일반적인 노동문제로 일면적으로 환원시키는 것을 의미하는 것은 아니다. 오히려 그것은 여성노동문제에서 노동문제와 여성문제가 각기 특수하게 나타나 결합되는 구조를 주목하는 것이다.

둘째로, 여성노동문제는 그 근원이 자본이 여성노동을 지배하는 데 있는 까닭에 기본적으로 자본축적의 구조와 동향에 의존하는 것이다. 특히 신발·섬유산업을 중심으로 한 부산지역 여성노동문제는 한국자본주의의 축적구조와 그 일환이자 그 지역적 표현인 부산지역에서의 신발·섬유부문 자본축적의 구조와 동향에 일차적으로 지배되지 않을 수 없다. 따라서 신발·섬유부문의 축적구조가 이 부문 여성노동자의 노동실태를 규정하는 측면을 주목한다.

셋째로, 여성노동자의 노동실태는 기본적으로 노동시장·노동과정·노동력재생산과정·노사관계·노동정책등의 측면에서 포착할 수 있으며 각 측면간의 유기적 관련성을 주목해야 한다. 그러나 이 연구는 연구의 범위를 노동시장과 노동과정이라는 두 측면에 한정시키고 있다.

넷째로, 여성노동자의 내부구성은 자본의 규모와 성격, 노동조직상의 지위와 기능, 산업과 직종 및 학력 등 다양한 요인들에 의해 규정되어야 할 것이다. 그러나 이 연구에서는 여성노동자를 기혼과 미혼 그리고 산업체부설학교의 학생으로 구분하여 노동실태를 파악한다. 그것은 자본의 유기적 구성이 상대적으로 매우 낮고 극히 열악한 임금 및 노동조건에 의존하며 노동집약적인 신발·섬유부문의 생산적노동자의 노동실태분석에 이 연구의 초점이 있기 때문에 무엇보다도 이러한 구분이 중요한 의미를 갖기 때문이다. 즉 노동주체로서의 이들 노동자의 주체적 조건은 부인노동과 미성년노동으로서 사회적으로 보호받아야 할 공통적 처지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자본은 노동시장과 노동과정, 노동력재생산과정, 노사관계 등 임금노동재생산의 전과정에 걸쳐 미혼, 기혼, 학생이라는 여성노동자의 주체적 조건과 그 차이를 최대한 자본증식에 이용한다. 따라서 이러한 구분은 단순히 연구대상의 제한에 따른 것만이 아니라 부산지역 여성노동문제의 인식과 실천에 있어 매우 중요한 의미를 담고 있는 것이다.

3. 연구의 내용과 방법

노동시장과 노동과정을 중심으로 여성노동자의 노동실태를 분석하여 당면한 정책 또는

실천의 과제를 제시하며 연구내용을 구체적으로 보면 다음과 같다.

첫째로, 부산지역의 여성노동문제를 규정하는 부산지역 경제구조와 이에 의존하는 여성 노동시장의 구조를 분석한다.

둘째로, 생산공정에 따른 노동과정의 특징·노무관리·노동시간·자동화와 생산성향상 운동·작업환경·성폭력 등 노동과정과 모집 및 채용과정·임금 및 고용조건·노동이동 등 노동시장을 분석한다.

연구방법을 간단히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연구의 객관성과 현실성을 확보하기 위해 기존의 연구문헌과 공식통계의 검토와 아울러 노동자·사용자·정부기관 등의 관계담당자와의 인터뷰, 설문지를 통한 실태조사, 관계전문가들과의 좌담회, 초청세미나 등을 실시하였다.

둘째, 설문지를 통한 실태조사는 300명 이상의 여성노동자를 고용하고 있는 신발업체 7개, 섬유업체(봉제업체) 7개 총 14개 업체를 표집선정하여 조사대상으로 하였다. 설문지는 미혼, 기혼, 학생노동자를 구분하여 각각 89문항, 82문항, 90문항으로 구성하였고 그 내용은 미혼, 기혼, 학생 각각의 노동과 생활의 특징을 고려하여 노동과정, 노동시장을 중심으로 구성하였다.

셋째, 객관적 실상을 파악함에 있어 설문지조사방법의 한계를 극복하기 위하여 설문지 조사의 전후에 그리고 필요시 수시로 공장견학, 초청세미나, 좌담회, 인터뷰 등에 의해 실상파악에 주력하였고 특히 신발·섬유업체 각 1개교를 무작위로 선정 사례조사연구를 실시하였다. 그리고 중간연구결과를 중심으로 부산지역의 노·사·정 관계전문가들 초청 공개심포지움을 개최하여 연구결과를 최종 점검하였다.

Ⅱ. 부산지역의 경제구조와 여성노동력의 존재형태

1. 부산지역의 경제구조

(1) 지역경제의 구조와 변동

부산지역 여성노동력의 존재형태와 그 변동은 무엇보다도 먼저 그 지역에서 활동하는 자본의 존재형태 및 축적구조와 그 성격에 의해 규정되는 지역경제의 구조와 변동에 의존한다.

부산지역경제는 60년대 이래 70년대 초반에 이르기까지 한국의 공업화와 고도성장이 신발·섬유·의복·목재·합판 등 수출지향적 경공업을 중심으로 급진전됨에 따라 급속히 성장하였다. 동 기간중 부산경제의 연평균성장률은 14.7%로 전국 최고수준을 보였으며 70년대 초반에는 전국 제조업생산의 13~16%, 전국 수출의 24~26%나 차지한 것은 이를 잘 보여주는 것이다. 이러한 성장은 무엇보다도 부산지역이 일찍부터 노동집약적 소비재공업의 중심지였다는 점, 대도시 내 노동인구의 대규모집적과 배후 농촌지역의 잠재적 과잉연구로 인한 풍부한 저임금 노동력의 공급, 양호한 무역항시설·기능, 교통의 요충지 기능 등의 조건을 갖추고 있었기 때문이다.

그러나 70년대 중반 이래 새로운 대규모공단지역을 중심으로 한 수출지향적 중화학공업화의 본격적 추진으로 한국의 공업구조는 급속히 고도화되며 80년대 중반경 이래 전통적인 중화학공업과 새로운 첨단기술산업의 비약적 발전경향이 수출주도형 공업화와 고도성장을 주도하게 된다. 이러한 산업간 불균등발전의 격화와 공업구조의 고도화과정은 무엇보다도 정치권력과 유착한 독점자본의 성장을 의미하는 것이지만 다른 한편으로 정치권력과 독점자본이 지역의 정치·경제를 지배·통제하는 거점으로서 서울지역에 모든 영역의 중추관리기능이 집적·집중되는 과정이며 주요 경제력의 서울 및 수도권 집중이 가속화되는 과정이었다. 이처럼 정치권력과 유착된 독점자본의 주도에 의한 중화학공업중심의 자본축적구조와 수도권 및 일부 중화학공업도시를 중심으로 한 지역적 불균등발전경향 등 산업적·지역적 불균등발전경향은 기왕의 부산경제의 내적 조건과 결부되면서 부산경제의 재생산구조와 지위에 결정적인 영향을 미친다. 이를 반영하여 부산경제는 다음과 같은 특징을 갖게 된다(표 II-1, II-2, II-3 참조).

첫째, 부산주민 총생산액의 전국비중은 80년 9.4%에서 86년 8.8%로 점차 저하경향을 보이는 가운데 제조업의 전국 비중은 부가가치기준으로 75년 15%에서 86년 8.9%, 88년 7.6%, 수출비중 역시 75년 24.1%에서 86년 13.5%, 89년 12%로 반감되었다. 이것은 중화학공업화와 산업구조의 변동에 능동적으로 대응하지 못한 부산지역제조업의 성장둔화 또는 정체와 타지역의 중화학공업과 첨단기술산업부문의 성장에 따른 것이다.

둘째, 부산의 공업구조는 부가가치기준으로 볼 때 1975년 이래 1988년에 이르기까지 섬유·의복·가죽부문·화학·고무·프라스틱부문·조립금속·기계부문이 전체제조업부가가치의 75.7%에서 77.1%까지를 차지하여 여전히 주종을 이루고 있다. 그러나 화학·고무·프라스틱부문의 비중이 24.9%에서 34.2%로 크게 높아지고 섬유·의복·가죽부문은 29.7%에서 20.2%로 크게 감소하고 있으며 조립금속·기계부문은 약간의 증대경향을 보인다. 조립금속 및 기계장비부문의 비중이 높은 것은 조선·자동차·전자기기 등 중화학공업이 집중되어 있는 인접도시와의 역외분업의 진전과 관련된 것이다.

(표 II-1) 부산경제의 전국비중 추이

구 분	단위	1970년		1975년		1980년		1985년		1986년		1987년		1988년		1989년	
		실적	전국 비중	실적	전국 비중	실적	전국 비중	실적	전국 비중	실적	전국 비중	실적	전국 비중	실적	전국 비중	실적	전국 비중
면적	km	373.23	0.4	375.31	0.4	432.72	0.4	434.52	0.4	434.64	0.4	435.13	0.4	475.13	0.4	525.95	0.5
인구	천명	1,842	5.7	2,453	7.0	3,160	8.3	3,515	8.6	3,579	8.7	3,654	8.8	3,751	8.9	3,857	9.1
제조업체수	개체	2,076	8.6	2,527	11.1	3,631	11.8	5,198	11.8	5,731	11.4	6,231	11.5	6,546	10.9	-	-
제조업채종업원수	천명	137	15.9	251	17.7	312	15.5	368	15.1	411	15.0	431	14.4	413	13.2	-	-
제조업생산액	억원	2,221	16.6	11,003	13.5	40,213	11.1	75,690	9.8	89,562	9.7	103,649	9.1	111,800	8.3	-	-
제조업부가가치	억원	823	15.0	3,196	11.3	13,176	11.1	24,743	9.3	29,356	8.9	33,622	8.3	36,480	7.6	-	-
수출실적	백만달러	220	26.3	1,223	24.1	3,183	16.3	4,087	13.5	4,717	13.5	6,338	13.3	8,575	14.1	7,524	12.0
예금은행예금	억원	824	10.4	2,861	10.3	10,855	8.8	27,387	8.8	32,045	8.9	40,641	8.9	47,314	8.2	57,591	8.6
예금은행대출금	"	622	8.6	2,646	9.1	10,548	8.6	27,387	8.1	27,814	7.1	33,003	7.7	37,845	7.7	50,638	8.1
어음교환액	"	10,117	12.0	33,589	10.4	182,811	5.6	490,068	3.8	457,791	4.2	630,018	4.1	864,693	3.1	968,633	3.0

자료: 한국통계연감, 광공업통계조사보고서, 부산시통계연보, 각년도판

〈표 Ⅱ-2〉 전국·부산의 공업구조 추이(부가가치 기준)

(단위:%)

구 분	전 국					부 산				
	1970	1975	1980	1985	1988	1970	1975	1980	1985	1988
소 비 재 공 업	47.8	47.1	40.5	34.9	31.0	33.7	38.6	35.1	32.0	28.9
음 · 식 료 품	25.7	22.2	16.6	13.8	11.1	15.4	8.6	8.8	8.6	6.4
섬유 · 의복 · 가죽	17.0	22.0	19.5	16.5	15.4	16.4	29.7	24.5	21.5	20.2
종이 · 인쇄 · 출판	5.1	3.9	4.4	4.6	4.5	1.9	1.3	1.8	1.9	2.312
중 간 재 공 업	35.5	34.7	35.8	32.5	30.6	43.4	40.4	47.8	44.4	45.8
나 무 · 나 무 제 품	3.5	2.6		1.7	1.5	1.5	11.2	6.3	1.7	1.7
화학 · 고무 · 플라스틱	22.0	21.8	20.5	18.5	17.6	21.6	24.9	34.6	30.5	34.2
비 금 속 광 물	6.0	5.6	5.8	4.8	4.3	3.2	2.2	3.8	1.9	2.4
제 1 차 금 융	4.0	4.7	7.8	7.7	7.2	7.4	6.5	8.7	0.1	7.5
자 본 재 공 업	13.8	16.3	21.8	30.6	35.9	21.9	21.1	15.4	21.7	22.7
조 립 금 속 · 기 계	13.8	16.3	21.8	30.6	35.9	21.9	21.1	15.3	21.7	22.7
기 타	2.9	1.9	1.9	1.9	2.3	1.0	1.3	1.7	1.9	2.5

주: '88년도는 잠정치임.

자료: 경제기획원, 광공업통계조사보고서, 각년도

〈표 Ⅱ-3〉 부산지역 산업별 취업자 구성

(단위:인, %)

구 분 연 도	총 취업자	구성비	농 립 및 수 산 업	구성비	광 공 업	구성비	사 회 간 접 자 본 및 기타	구성비
1984	1,062,939	100	46,776	4.4	409,419	38.5	606,744	57.1
1985	1,089,271	100	43,397	4.0	414,296	38.0	622,678	57.2
1986	1,124,058	100	40,732	3.6	439,948	39.1	643,378	57.2
1987	1,204,821	100	40,137	3.3	492,221	40.7	674,473	56.0
1988	1,206,574	100	40,549	3.4	501,599	41.6	664,426	55.1
1989	1,512,000	100	41,000	2.7	588,800	38.9	883,000	58.4

자료: 부산시, 부산통계연보, 1990

셋째, 부산지역 전제조업 중 중소기업의 비중은 88년말 현재 업체수의 97.2%, 종업원수의 52.8%, 부가가치의 57.9%를 차지하고 있다. 이처럼 부산지역경제에서 중소기업의 비중과 역할이 매우 클 뿐만 아니라 업체수, 종업원수, 부가가치 모두가 80년대를 통하여 비중증대경향을 보이며 특히 종업원수의 비중이 80년 43.7%에서 88년 52.8%로 커진 데 비해 부가가치의 비중은 43.7%에서 57.9%로 증대되어 부산 중소제조업체의 부가가치생산기여도가 매우 높음을 알 수 있다. 그러나 일인당 부가가치를 보면 신발·섬유·의복부문의 경우 전국중소제조업이나 부산의 중소제조업 평균에도 훨씬 미달하고 있다.)

넷째, 부산의 총취업자수는 79년 874,740명에서 89년 1,512,000명으로 급증하였으나 산업별 취업자구성을 보면 부산의 제조업 성장의 정체와 인구의 꾸준한 증가세를 반영하여

사회간접자본 및 기타 서어비스부문의 비중은 위 기간중 53.6%에서 58.4%로 커지고 있어 부산의 탈공업적인 소비·유통도시적 성격이 강화되고 있다. 그러나 주목해야 할 것은 수출과 제조업의 성장이 둔화 또는 정체되는 시기에 제3차산업부문의 취업비중이 높아진다는 것이다. 이것은 섬유·신발 등 노동집약적인 주종업종의 생산과 고용수준이 경기변동에 민감할 뿐더러 이 업종과 제3차 서어비스부문은 노동이동과 고용수준의 측면에서 깊은 상관관계를 갖고 있음을 의미한다.

(2) 신발 및 섬유·의복산업의 특징

부산지역의 주종제조업인 섬유·의복·가죽산업과 화학·섬유·고무·프라스틱산업은 대분류 방식으로 보면 부산지역 업체수의 21.3%와 20.2%, 종업원수의 24.9%와 40.2%, 부가가치의 20.2%와 34.2%를 차지하고 있다. 이들 두 부문은 제조업전체 종업원수의 65.1%, 부가가치의 54.4%를 차지하고 있다(〈표 Ⅱ-4〉 참조).

신발부문과 섬유·의복부문을 보면(〈표 Ⅱ-5〉참조), 신발업종은 한국신발업의 대다수가 부산에 집중되어 있고 지역산업에 차지하는 비중도 연간생산액, 업체수, 종업원수면에서 23.02%, 12.89%, 39.38%를 차지하고 있는 지역 최대의 업종이다. 섬유·의복업은 한때는 지역 산업 중 최고의 비중을 차지했지만 현재는 신발업 다음의 위치를 차지하고 있다. 전체 제조업에서의 비중은 각각 14.69%, 15.3%, 18.82%를 차지하고 있다.

신발 및 의류산업의 특징을 보면 첫째는, 고도의 기술을 요하지 않고 고정자본의 비중이 적어 자본의 유기적 구성이 매우 낮다는 점이다. 따라서 시장진입과 이탈이 용이하고 신발업체간 부문내 경쟁이 상대적으로 훨씬 치열하며 경기변동등 기업경영환경의 변화에 따라 중소기업의 신설, 휴폐업, 도산을 겪는 경우가 상대적으로 빈번하다.⁵⁾

둘째는, 이들 업종은 생산중 대부분을 수출에 의존하는 대표적인 수출산업으로서 부산지역 전체 수출액의 60% 이상을 차지하고 있다는 점이다. 두 업종 모두 시장실현조건외의 대외종속성을 특징으로 하고 있으나 특히 신발의 경우 O·E·M(주문자상표 부착 생산) 방식에 기초하여 국제신발상인자본이 한국신발자본의 시장과 생산에 대해 강력한 지배력을 행사하고 있다. 한편으로 국내 업체간 치열한 경쟁, 다른 한편으로 주요원자재의 수입 의존도가 높다는 사실과 함께 시장의 대외의존이라는 구조적 속성 때문에 이들 업종의 생산과 고용은 환율변동, 해외수요변동, 국제원자재시장의 동향, 발전도상국과의 경쟁의 격화 등 대외적 요인에 따라 불안정하지 않을 수 없다.

셋째로, 이들 업종은 중화학업종에 비해 자본의 유기적 구성과 노동생산성이 상대적으로 낮고 제조원가에서 노무비가 차지하는 비중이 매우 높다는 점이다⁶⁾. 따라서 이들 업종

〈표 II-4〉 부산제조업의 업종별 현황

(1989년말)

구 분	업 종 수		종 업 원 수		생 산 액		부 가 가 치	
	(개체)	비중	(천명)	비중	(10억원)	비중	(10억원)	비중
계	6,546	100.0	413	100.0	11,180	100.0	3,648	100.0
음 · 식 료 품	288	4.4	19	4.6	882	7.9	234	6.4
섬유 · 의복 · 가죽	1,396	21.3	103	24.9	2,224	19.6	737	20.2
목재 · 목재품	337	5.1	8	1.9	243	2.2	61	1.7
지류 · 인쇄 · 출판	316	4.8	7	1.7	233	2.1	84	2.3
화학 · 석유 · 고무 · 프라스틱	1,324	20.2	166	40.2	3,657	32.7	1,247	34.2
비금속광물	127	1.9	5	1.2	262	2.3	88	2.4
제1차금속	210	3.2	16	3.9	1,260	11.3	275	7.5
조립금속 · 기계장비	2,335	35.7	78	18.9	2,209	19.8	829	22.7
기타	213	3.3	11	2.7	210	1.9	93	2.5

자료: 경제기획원, 산업센서스 暫定值, 1989.

〈표 II-5〉 부산 제조업 중 섬유 · 의복 · 신발업의 비중

업 종		연간생산액(백만원)	업 체 수(개)	종 업 원 수(명)
전 제 조 업		12,681,290(100)	6,556(100)	405,010(100)
섬유	소 계	1,863,976(14.69)	1,007(15.35%)	76,233(18.82)
	섬 유	1,066,969(8.41)	571(8.70%)	32,876(8.09)
의복	의 복	797,007(6.28)	436(6.65%)	43,447(10.73)
	소 계	3,016,267(23.79)	918(14.00%)	162,560(40.13)
신 발	가 죽 신 발	97,310(0.77)	73(1.11%)	3,053(0.75)
	고 무 신, 제 조 업 (혁 제 운 동 화 포 함)	2,918,957(23.02)	845(12.89%)	159,507(39.38)

자료: 부산상공회의소, 부산지역 제조업체 현황 1990에서 작성

주) 섬유 · 의복부문은 산업 소분류에 의한 구분이며 가죽신발 고무신제조업은 세세분류방식에 의한 구분임.

에서는 상대적으로 보다 낮은 임금⁷⁾, 보다 긴 노동시간, 보다 높은 노동강도, 보다 열악한 작업환경에 의존하는 경향이 지배적이다. 거꾸로 말하면 이들 업종의 대다수 기업은 기술혁신과 노동생산성향상을 통해 생활임금의 보장, 노동시간 단축, 작업환경의 개선을 도모하는 대신 열악한 노동조건에 의존해온 것이다. 따라서 이 부문 노동자의 임금수준이 생계비를 밀도는 수준이라고 하더라도 최근 원화절상과 함께 임금상승은 이 업종의 경영조건과 국제경쟁력 조건에 상당한 부담을 안겨주고 있는 것은 부인할 수 없는 것 같다. 그 결과 이들 업종의 기업은 한편으로 산업합리화와 공장자동화, 기술개발 등을 통한 노동생산성증대에 관심을 가지면서도 다른 한편 값싼 노동력공급과 수출시장확대를 위해 최근 동남아등지로의 해외진출을 추진하는 경향을 보이고 있다⁸⁾. 특히 대규모 신발자본의 해외

진출이 국내 신발산업의 생산과 고용의 감소 및 중소기업의 도산 등의 촉진요인으로 작용할 수 있다는 점에서 그 귀추가 매우 주목된다고 하겠다.

요컨대 부산지역 제조업의 주종을 이루는 신발·섬유·의류산업은 안팎으로 상대적으로 취약하고 불안정한 재생산조건을 가지고 있는 것이다. 그것은 한편으로 첨단기술산업화에 따른 정책적 금융적 소외, 모든 영역의 중추관리기능의 서울집중과 국토개발전략상 부산 지역개발의 소외등 산업과 지역의 불균등격차의 구조적 확대에, 그리고 부산의 탈공업적, 서서비스도시적 성격의 강화와 일반적인 생산 및 재생산조건인 열악성에 기인한다. 다른 한편으로 그것은 자본의 유기적 구성의 저위와 중소기업의 압도적 비중, 노동집약적 성격과 낮은 노동생산성, 시장등의 해외의존적 성격과 불안정성 등 이 업종자체의 특성에도 기인한다.

2. 여성노동력의 존재형태

이상과 같이 이 업종에 특수한 취약한 재생산조건은 최대한의 이윤추구를 지향하는 자본의 본성에 기초해서 이 임금노동의 재생산조건을 상대적으로 가장 열악하게 하는 객관적 조건으로 작용하는 것이다. 물론 이러한 객관적 조건위에서 임금노동의 재생산조건인 현실적 수준을 결정하는 것은 노동시장의 수급조건과 함께 신발 및 섬유·의류자본의 노동정책과 노동조합운동 곧 노사간의 구체적 대항관계이다. 부산지역 신발·섬유·의복산업의 경우 이러한 객관적 조건에 전제적·전근대적·성차별적 노동통제와 자주적 민주적 노동조합운동의 취약성⁹⁾ 등의 조건이 결합되어 저임금, 장시간 노동, 열악한 작업환경과 고용의 불안정성 등이 특히 두드러지게 나타나지 않을 수 없다.

이처럼 자본의 재생산조건이 취약하고 열악한 노동조건에 의존하는 부산지역의 이들 산업은 노동력수요의 대부분을 여성노동력에 집중시키고 있다. 그것은 한편으로 자본이 노동시장과 노동과정에서 성의 차별·억압을 최대한 이용하여 노동에 대한 지배를 강화하고자 하기 때문이다. 다른 한편으로 그것은 대도시에 대규모로 집적된 상대적 과잉인구의 주요부분이 여성인구이며 가족생계비와 임금 또는 소득간의 괴리에 직면한 노동자 및 빈민가족의 여성노동력 대다수가 가계보충적 노동 또는 단신노동으로 노동시장에 공급되기 때문이다. <표 II-11>에서 보는 바와 같이 여성노동자의 비중은 섬유·의복의 경우 70.34%, 신발산업의 경우 63.29%—그 중에서도 특히 의복과 고무·신발부문의 여성노동자 비중은 훨씬 더 높다—로 압도적이다. 이것은 이러한 여성노동시장의 수급조건과 밀접히 연관되어 있는 것이다. 특히 기혼여성노동자의 비중이 섬유·의복과 신발부문 노동자수의 각각 약 19.84%와 25.45%를 차지하고 있는 것은 주목할 만한 변화이다. 종래 이들 산업

의 노동수요는 미혼여성노동력에 집중되었으나¹⁰⁾ 농촌미혼여성 노동력유입의 감소, 진학률의 상승, 여성노동자의 유통·금융·사무 등 서어비스직 선호경향과 열악한 노동조건에 따른 이 업종기피경향으로 인하여 열악한 노동조건에 적합한 미혼여성노동력의 공급은 크게 감소하고 있다. 따라서 자본의 노동수요는 현재의 저임금과 열악한 노동조건에서의 안정적인 노동력을 확보하고자 하는 자본의 노동력확보정책의 일환일 뿐이다.

끝으로 섬유·의복 및 신발산업을 중심으로 한 부산지역 여성노동력의 존재형태를 통계 자료를 통해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첫째, 5인 이상 사업체에 취업하고 있는 부산지역 총여성취업자수는 1989년 현재 227,007명으로 총취업자수 556,185명 중 40.1%를 차지한다(〈표 Ⅱ-6〉참조). 이러한 여성취업자의 추이를 보면 주목되는 것은 (〈표 Ⅱ-7〉참조) 세계적인 불황기인 1980년과, 경기침체와 산업구조조정, 원화절상압력으로 특징지워지는 1989년 전후에 총여성취업자수가 커다란 감소를 보이고 있는 것이다. 이것은 이시기 무엇보다도 제조업부문에서의 여성취업자수가 크게 감소한 데 따른 것이다. 그러나 이와 반대로 80년대 전체를 통해, 그리고 89년을 전후하여 금융 및 보험업, 도·소매·숙박·음식업·기타 서어비스업등 서어비스산업의 여성취업자수는 비약적인 증가경향을 보이고 있다. 이 같은 총여성취업자수 및 그 구성의 변동은 앞서 살펴본 바와 같은 부산지역 주종산업재생산의 내외적 조건과 부산산업의 서어비스산업화경향을 극명하게 보여주는 것이다.

둘째, 제조업부문별 여성노동자구성을 보면 (〈표 Ⅱ-8〉참조) 섬유·의복부문은 1976년 제조업총여성취업자의 49.5%에서 1989년 29.1%로 그 비중이 감소되고 절대수도 크게 감소한 반면 신발부문은 33.2%에서 54.2%로 증대되고 절대수도 두 배 가까이 증가하여 10만을 넘어섰다. 그 외 조립금속·기계장비제조업부문은 7%의 비중을 차지하고 있다.

〈표 Ⅱ-6〉 부산의 산업별 남녀구성

			(단위:인, %)		
산	업	별	계	남	여
전	산	업	566,185(100)	339,178(59.9)	227,007(4.1)
농	림	업	2,411	2,283	128
광		업	189	176	13
제	조	업	389,756	203,071	186,085
전	기	업	1,231	1,083	148
건	설	업	10,107	9,059	1,048
도	· 소	매	29,580	19,017	10,563
운	수	· 창	73,269	66,887	6,382
금	용	업	29,736	19,622	10,114
서	어 비	스	299,056	17,980	11,926

자료:노동부, 사업체노동실태조사보고서, 1989.

〈표 Ⅱ-7〉 부산지역 산업별 여성취업자 추이

(단위:인, %)

년 도 구 분 산업별	1979		1981		1984		1987		1989	
	여성취 업자수	구성비	여성취 업자수	구성비	여성취 업자수	구성비	여성취 업자수	구성비	여성취 업자수	구성비
전 산 업	191,172	100	179,929	100	216,046	100	248,901	100	227,007	100
농림및수산업	142	0.07	116	0.06	41	0.02	160	0.06	128	0.06
광 업	20	0.01	12	0.01	7	-	2	-	13	0.01
제 조 업	167,346	87.5	156,884	87.2	187,033	84.7	214,412	86.1	186,685	82.24
전기및가스업	143	0.07	143	0.08	76	0.04	162	0.07	148	0.07
건 설 업	2,295	1.20	1,272	0.71	1,361	0.62	1,421	0.57	1,048	0.46
도·소매숙박업 (음 식)	6,534	3.42	6,355	3.53	7,233	3.36	8,584	3.45	10,563	4.65
통 신 · 운 수 · 창 고 업	5,781	3.02	5,930	3.29	8,865	4.10	5,786	2.32	6,382	2.81
금융및보험업	5,058	2.65	4,914	2.73	7,045	3.26	7,717	3.10	10,114	4.46
기타서비스업	3,854	2.02	4,303	2.39	8,385	3.88	10,657	4.29	11,926	5.25

자료:노동부, 사업체노동실태조사보고서, 1979, 1981, 1984, 1987, 1989.

〈표 Ⅱ-8〉 부산지역 제조업 부문별 여성취업자

(단위:인, %)

년 도 구 분 산업별	1976		1980		1983		1985		1987		1990	
	여성취 업자수	구성비	여성취 업자수	구성비	여성취 업자수	구성비	여성취 업자수	구성비	여성취 업자수	구성비	여성취 업자수	구성비
제 조 업 전 체	169,787	100.0	154,739	100.0	185,042	100	175,989	100	207,671			
음 식 료 및 담 배 제 조 업	5,282	3.1	6,142	4.0	7,738	4.2	7,661	4.3	8,016	3.9	9,076	9.6
섬 유 의 복 및 가 죽 산 업	84,087	49.5	71,672	46.3	77,204	41.7	74,291	42.2	69,962	33.7	57,751	29.0
나 무 및 나 무 제 품 제 조 업	6,925	4.1	2,844	1.8	2,073	1.1	1,925	1.1	1,648	0.8	1,390	0.7
화 학 · 고 무 · 석 탄 플 라 스틱 제 조 업	56,397	33.2	58,256	37.6	79,209	42.8	73,056	41.5	104,453	50.3	10,722	54.2
비 금 속 제 조 업 · 석 유	1,480	0.9	1,448	0.9	1,345	0.72	1,210	0.7	1,411	0.7	835	0.4
제 1 차 금 속 조 립 금 속 · 기 계 및 장 비 제 조 업	1,324	0.8	1,049	0.7	866	0.5	1,147	0.6	877	0.4	1,644	0.8
기 타 제 조 업	10,729	6.3	8,505	5.5	10,145	5.5	11,603	6.6	12,283	5.9	13,856	7.0
기 타 제 조 업	2,339	1.4	3,483	2.3	4,591	2.5	3,517	2.0	7,510	3.6	5,010	2.5

자료:부산상공회의소, 「부산지역 제조업체 현황」, 1976, 1980, 1983, 1985, 1987, 1990.

셋째, 종사상 지위별 여성노동자 구성을 보면 (5인이상 사업체 기준:〈표 Ⅱ-7〉참조). 전 산업 여성취업자 중 개인업주 및 유급임원의 비율은 극히 미미하고 임시 및 일용근로자는 약 2%의 비중을 불과하여 상용근로자가 약 98%의 비중을 차지하고 있다. 개인업주

〈표 Ⅱ-9〉 종사상 지위별 여성취업자의 구성

(단위:인, %)

산업	지위	계	개인업주	무급가족 종사자	유급임원	상용근로자	임시 일용근로자
전산업		227,007 (100)	188 (0.08)	256 (0.11)	114 (0.05)	222,316 (97.93)	4,133 (1.92)
농림업		128	-	-	-	128	-
광업		13	-	-	1	12	-
제조업		186,685	129	66	53	184,479	1,958
전기업		148	-	-	-	146	2
건설업		1,048	-	-	9	769	270
도·소매업		10,563	47	26	12	9,439	1,039
운수·창고업		6382	-	-	30	6,209	143
금융업		10,114	-	162	5	9,628	319
서비스업		11,926	12	2	4	11,506	402

자료:노동부, 사업체노동실태조사보고서, 1989.

〈표 Ⅱ-10〉 직능별 남·여구성

(단위:인)

업종	사무직			기술직			생산직		
	남자	여자		남자	여자		남자	여자	
		기혼	미혼		기혼	미혼		기혼	미혼
음식료품	3,854	126	1,701	626	7	15	5,395	3,214	4,013
섬유·의복및가죽산업	6,794	354	3,265	1,538	69	101	2,010	16,913	37,769
나무및나무제품	605	30	351	254	5	2	4,566	638	364
종이제품·인쇄및출판	1,267	41	476	354	12	30	3,301	594	437
화학,석유,석탄,고무및프라스틱	13,683	420	4,794	2,291	121	289	61,027	42,490	59,608
비금속광물제품	466	23	187	128	-	-	2,412	459	166
제1차금속산업	1,893	31	716	664	4	6	11,712	382	505
조립금속및기계·장비	10,507	462	4,141	4,148	65	86	45,329	4,683	4,419
기타	1,012	52	583	213	3	35	3,166	2,584	1,753
전제조업	39,811	1,539	15,584	10,216	286	564	156,739	71,237	109,034

자료:부산상공회의소, 부산지역 제조업체의 현황, 1990.

와 무급가족종사자의 비중이 거의 무시할 수 있을 정도로 낮은 것은 조사대상업체가 5인 이상 사업체이기 때문이지만, 5인 이하 사업체에 여성자영업주 및 여성가족종사자가 집중되어 있다는 사실을 유의하지 않으면 안된다. 그리고 임시 및 일용 여성노동자의 비중이 낮고 절대다수가 상용노동자임은 매우 특징적이다.

넷째, 제조업내 직종별 노동자구성을 보면 (〈표 Ⅱ-10〉참조), 사무직의 경우 남녀 비율은 2.33:1, 기술직의 경우 12:1로 나타나 여성의 비중이 훨씬 낮은 반면 생산직의 경우 0.87:1로서 여성의 비중이 상대적으로 높다. 특히 섬유·의복부문에서는 사무직의 경우 남녀비율이 2:1, 기술직의 경우 약 10:1이고 화학·고무·프라스틱의 경우 사무직의 경우

(단위:인, %)

(표 II-11) 섬유·의복, 신발업종의 직종·성별 구성

업종	계		사 무 직				기 술 직				생 산 직				
	남	여	계	남		여		계	남	여		계	남	여	
				기혼	미혼	기혼	미혼			기혼	미혼				
섬유	22,605	38,501	8,539	5,577	306	2,656	1,516	1,360	62	94	66,178	15,668	14,759	35,751	
	(29.66)	(50.50)	(11.20)	(7.32)	(0.40)	(3.48)	(1.99)	(1.79)	(0.08)	(0.12)	(86.81)	(20.57)	(19.35)	(46.89)	
의복	13,123	14,661	4,292	2,781	140	1,371	1,134	1,054	30	50	27,360	9,288	4,832	13,240	
	9,482	23,840	4,247	2,796	166	1,285	382	306	32	44	38,818	6,380	9,927	22,511	
신발	59,673	61,513	12,930	9,403	308	3,219	1,401	1,039	104	258	148,229	49,231	40,962	58,036	
	(36.71)	(37.84)	(7.95)	(5.78)	(0.19)	(1.98)	(0.86)	(0.64)	(0.06)	(0.16)	(91.19)	(30.29)	(25.20)	(35.70)	
가족신발	1,789	722	514	365	19	130	29	28	-	1	2,510	1,396	523	591	
교부신제조업 (현재운동화포함)	57,884	60,791	12,416	9,038	289	3,089	1,372	1,011	104	257	145,719	47,835	40,439	57,445	

자료:부산상공회의소, 부산지역 제조업체 현황 1990.

(단위:인, %)

(표 II-12) 연령별 여성취업자 구성

산업별	연령별	계	13세미만	13세	14~17세	18~19세	20~24세	25~29세	30~39세	40~49세	50~54세	55세이상
전 산	계	227,007	29	53	14,501	27,603	75,013	36,410	36,150	26,365	7,852	3,031
	임	(100)	(0.01)	(0.02)	(6.39)	(12.16)	(33.04)	(16.04)	(15.92)	(11.61)	(3.46)	(1.34)
농 립	계	128	.	.	.	9	94	19	5	1	.	.
	임	13	13	.	.	2	6	4	1	.	.	.
제 조	계	186,685	29	53	14,394	25,804	56,619	26,341	31,034	23,156	6,722	2,533
	임	148	.	.	.	5	66	55	16	3	1	2
기 업	계	1,048	.	.	1	42	446	154	167	143	61	34
	임	1,048	.	.	1	42	446	154	167	143	61	34
도 · 소 매	계	10,563	.	.	24	449	5,624	2,218	896	932	307	113
	임	10,563	.	.	24	449	5,624	2,218	896	932	307	113
운 수 · 창	계	6,382	.	.	13	356	3,009	1,218	1,129	513	101	43
	임	6,382	.	.	13	356	3,009	1,218	1,129	513	101	43
금 용	계	10,114	.	.	39	563	4,260	2,963	1,143	679	302	165
	임	10,114	.	.	39	563	4,260	2,963	1,143	679	302	165
서 어 비 스	계	11,926	.	.	30	373	4,889	3,438	1,759	938	358	141
	임	11,926	.	.	30	373	4,889	3,438	1,759	938	358	141

자료:노동부, 사업체노동실태조사보고서, 1989.

26:1, 기술적의 경우 5.7:1로 나타나고 있다(〈표 Ⅱ-11〉참조). 생산적의 경우 섬유·의복 부문에서는 거꾸로 1:2.6, 화학·고무·프라스틱부문에서는 1:2.7로 나타나고 있다. 요컨대 이것은 기술직·사무직과 생산직간의 직종과 성에 기초한 노동시장의 분단과 성별 직종차별이 구조화되어 있음을 극명하게 보여주고 있다.

다섯째, 연령별 여성노동자의 구성을 보면 (〈표 Ⅱ-12〉참조), 미혼여성노동자로 간주할 수 있는 20~24세, 18~19세가 각각 33.0%, 12%로 약 45%를 차지하고 있고, 25~29세 연령층이 16%이며 확실한 기혼여성노동자로 간주할 수 있는 30세 이상이 약 33%를 점하고 있다. 특히 17세 미만의 미성숙여성노동자수가 14,500명이나 되어 6%를 상회하고 있으며 그 거의 대부분이 제조업에 고용되어 있다. 또한 30세 이상의 기혼여성노동자의 대부분이 제조업부분에 고용되고 있는데 이것은 앞서 본 부산지역 주종산업의 재생산조건과 임금노동의 재생산조건 그리고 부산지역 노동시장의 구조변화가 집중적으로 표현된 것 외에 다른 것일 수 없다.

Ⅲ. 부산지역 여성노동자의 노동과정 및 노동시장의 실태

1. 조사대상자의 일반적 사항

〈표 Ⅲ-1〉 업종

업종	기혼	미혼	학생	계
신발업	173(19.2)	192(21.4)	169(18.7)	534(59.3)
섬유업	81(9.0)	162(17.9)	124(13.8)	366(40.7)
계	254(28.2)	354(39.3)	292(32.5)	900(100.0)

〈표 Ⅲ-2〉 나이

나이	기혼	미혼	학생	계
20세미만	1(0.1)	53(5.9)	217(24.2)	271(30.2)
20~25	15(1.7)	290(32.3)	75(8.1)	380(42.1)
26~30	41(4.6)	11(1.2)	0	52(5.8)
31~35	61(6.8)	0	0	61(6.8)
36~40	73(8.1)	0	0	73(8.1)
41~45	39(4.3)	0	0	39(4.4)
46~50	16(1.8)	0	0	16(1.8)
51~55	5(0.6)	0	0	5(0.6)
56세이상	3(0.2)	0	0	2(0.2)

〈표 Ⅲ-3〉 고향분포

근 부 형 태	기 혼	미 혼	학 생	계
부 산		101(26.3)	97(25.3)	198(51.6)
경 상 도		47(12.3)	63(16.5)	110(28.8)
전 라 도		24(6.3)	17(4.4)	41(10.7)
강 원 및 경 기		0	1(0.3)	1(0.3)
기 타		18(4.7)	15(3.9)	33(8.6)
계		190(49.6)	193(50.4)	383(100.0)

2. 노동과정의 실태

1) 생산공정과 직무에 따른 성별분업

신발과 섬유(의류)산업은 자본 및 기술집약적 산업과는 달리 일반적으로 일일이 수작업을 요하는 부분공정들이 많고 기계화와 자동화의 수준이 상대적으로 낮아 공정이 세분되어 있다. 이같이 세분된 각 공정에 노동자들이 고정되어 똑같은 단순작업을 반복하는 노동과정은 직무의 파편화와 탈숙련화과정에 지배되고 있는 것이다. 또한 작업과정이 좁은 공간에 집중·고정되어 있어 관리감독이 용이하다.

신발산업의 경우 생산공정은 크게 준비, 재단, 재봉, 제화의 4단계로 이루어지고 있다. 준비부서에서는 여성노동자가 약 30%의 비중을 차지하며 주로 가위밥작업을, 남자는 몰드작업등을 담당한다. 재단부서에서는 주로 남자는 설계와 도안주조등을, 여자는 남자재단사를 보조하는 보조공일이나 부품검사역을 담당한다. “신발제조업의 사황은 미싱에 달려 있다”고 할 정도로 핵심적인 공정인 재봉부서에서는 여성 노동자가 미싱사, 미싱보조, 재봉검사 등 모든 작업을 수행한다. 제화부서에서는 여성노동자가 약 80%의 비중을 차지하고 주로 신발밀창폴칠과 접착등을 담당하고 토라스트작업을 담당한다.

의류산업의 경우 생산공정은 크게 재단, 준비, 재봉, 완성의 4단계로 이루어진다. 재단부서에서는 남자재단사의 지휘감독 아래서 여자는 재단사보조역을 담당한다. 재단된 천의 분류작업등이 이루어지는 준비부서와 주로 미싱작업으로 이루어지는 재봉부서는 거의 전부가 여성노동자이며 완성부서에서는 여자가 검사, 다리미질 등을 한다.

이처럼 신발과 의류산업은 생산공정과 직무에 따른 성별분업이 구조화되어 있으며 여성노동자는 주로 전통적으로 여자의 일로 인식되는 재봉일이나 남자를 보조하는 일, 단순기능에 집중하고 있는 것이 보통이다. 이같은 성별분업은 단순히 남녀간의 신체적 조건등 자연적 차이를 근거로 하고 있는 측면 외에 상차별과 성에 대한 노동통제의 측면도 포함

하고 있는 것은 부인할 수 없다.

특히 생산공정간의 연결과 관련하여 주목되는 것은 신발산업의 경우 작업이 거의 콘베이어시스템을 이용한 일관작업에 따라 진행되는 데 비해 콘베이어시스템의 채용이 용이치 않는 의류산업의 경우 블럭시스템(block system)에 의해 부품단위로 작업이 진행된다는 점이다. 신발의 경우 콘베이어시스템을 통한 일관작업으로 작업의 준비 및 운반시간이 줄고 실제작업시간이 늘려지며 라인작업속도가 조절됨으로써 생산성이 증가되는 반면 노동강도가 강화된다는 측면이 주목된다.¹¹⁾

2) 노동시간

노동시간은 임금과 함께 가장 중요한 노동조건 중의 하나이며 자본과 노동자간의 대립이 가장 집중적으로 표현되는 노동과정의 요소이다. 1988년 부산지역제조업의 여성노동자의 평균노동일수는 월 25.3일, 월 총노동시간은 248.0시간, 정상근로시간은 201.6시간, 초과근로시간은 46.1시간으로 나타나 전국에서 가장 노동시간이 길다. 이것은 같은 부문의 남성노동자의 노동시간 즉 각각 월 25.0일, 월 241.4시간, 199.1시간, 42.3시간에 비해서도 현저하게 길다. 실태조사를 중심으로 구체적인 노동실태를 보면 다음과 같다.

첫째, 근무형태를 보면 기혼과 학생노동자의 86%, 미혼여성노동자의 82%가 정상근무형태를 취하여 미혼여성노동자의 12.7%가 3교대, 기혼의 8.6%가 2교대 근무를 한다. 특히 학생노동자의 12%가 2교대로 일한다는 대답은 매우 충격적이다.(<표 Ⅲ-4>참조)

〈표 Ⅲ-4〉 근무형태

근무형태	기혼	미혼	학생	계
정상근무(주간)	211(86.15)	289(81.9)	252(86.6)	752(84.7)
2교대	21(8.6)	19(5.4)	36(12.4)	76(8.6)
3교대	12(4.9)	45(12.7)	3(1.0)	60(6.7)
기타	0	0	0	0
무응답	10	1	1	12

둘째, 정상근무의 경우 대부분이 8시에 작업을 시작하여 18시에 끝내고 있어 사실상 하루 9시간을 일하고 있다. 그러나 8시 이전에 작업을 시작한다는 사람이 18% 내외나 되고 작업종료시간후 30분이상 일하는 사람도 미혼 23.0%, 기혼 28.3%, 학생 2.0%나 된다(<표 Ⅲ-5, 표 Ⅲ-6>참조). 더우기 중식시간이 1시간이라고 답한 사람은 학생 15.3%, 기혼 24%, 미혼 32.7%로 대부분이 40~50분에 불과하여 점심시간의 일부가 노동시간에 포함되고 있는 실정이다(<표 Ⅲ-7>참조).

〈표 Ⅲ-5〉 작업시작시간(정상근무)

시작시간	기혼	미혼	학생	계
7:40이전	4(2.6)	14(4.9)	6(2.4)	24(3.5)
7:40	4(2.6)	12(4.2)	9(3.6)	25(3.6)
7:50	18(11.9)	27(9.5)	32(12.8)	77(11.2)
8:00	125(82.8)	187(65.8)	187(74.8)	499(72.8)
8:00이후	.	44(15.5)	16(6.4)	60(8.8)
무응답	60		2	62

〈표 Ⅲ-6〉 작업종료시간(정상근무)

종료시간	기혼	미혼	학생	계
16:00	3(1.5)	4(1.4)	10(4.0)	17(2.3)
16:50	0(0)	1(0.4)	56(22.5)	57(7.8)
17:00	2(1.0)	4(1.4)	118(47.4)	124(17.0)
17:50	13(6.6)	17(6.0)	24(9.6)	54(7.4)
18:00	124(62.6)	192(67.8)	36(14.5)	352(48.2)
18:30	50(25.3)	54(19.1)	5(2.0)	109(14.9)
19:00	6(3.0)	11(3.9)	0(0)	17(2.3)
무응답	13	6	3	22

〈표 Ⅲ-7〉 증식시간(정상근무)

증식시간	기혼	미혼	학생	계
1시간	48(24.0)	92(32.7)	38(15.3)	178(24.4)
50분	76(38.0)	80(28.5)	110(44.4)	266(36.5)
40분	70(35.0)	94(33.5)	89(35.9)	253(34.7)
30분	4(2.0)	7(2.5)	8(3.2)	19(2.6)
30분미만	2(1.0)	8(2.8)	3(1.2)	13(1.8)
무응답	11	8	4	23

〈표 Ⅲ-8〉 작업중 식사시간(2·3교대)

식사시간	기혼	미혼	학생	계
정해진 시간에 식사한다	24(72.7)	21(33.9)	2(33.3)	66(55.0)
교대로 식사한다.	9(27.3)	3(4.8)	0(0)	12(10.0)
작업중에 빵과 우유로 대체	.	38(61.3)	4(66.7)	42(35.0)
기타	.	0	0(0)	0(0)
무응답	.	2	29	31

2교대 내지 3교대자의 경우에는 아예 식사시간이 없이 작업장에서 빵과 우유등으로 대체한다는 사람이 미혼 61.3%, 학생 66.7%에 이르고 있다(〈표 Ⅲ-8〉참조).

또한 휴식시간이 전혀 없다는 응답이 기혼이 7.6%, 미혼이 12.3%, 학생이 16.7%이며 대부분이 오전에는 쉬지 않고 오후에만 10분 쉰다고 한다(〈표 Ⅲ-9〉참조) 이상과 같은 작업시간등을 고려하면 사실상의 표준노동시간은 법정 8시간이 아니라 9시간시간을 넘어서고 있는 것이다.

〈표 Ⅲ-9〉 중간휴식시간(정상근무)

휴식 시간	기 혼	미 혼	학 생	계
오후·오후 각10분	35(17.7)	44(17.5)	17(7.1)	96(13.9)
오후에만 10분 쉰다	133(67.2)	177(70.2)	169(70.4)	479(69.4)
쉬는 시간이 전혀 없다	15(7.6)	31(12.3)	49(16.7)	86(12.5)
기 타	15(7.6)	0(0)	14(5.8)	29(4.2)
무 응 답	13	37	12	52

셋째, 잔업 및 철야노동실태를 보면, 잔업이 없다는 응답자는 학생 90%, 미혼 61%, 기혼 49% 순이다. 학생응답자의 10%가 잔업을 하고 있다는 사실은 노동시간에 의한 학교시간의 침해를 의미하는 것이다. 주당 1~2번 잔업하는 응답자는 기혼과 미혼을 막론하고 30%를 약간 상회하고 있고 특히 기혼의 경우 18.5%가 주당 3~5회 잔업을 하고 있다는 점은 주목된다. 잔업시간을 보면 기혼의 80%, 미혼의 73%가 잔업횟수당 2~3시간을 잔업하고 있다(〈표 Ⅲ-10, Ⅲ-11〉참조).

〈표 Ⅲ-10〉 주당 잔업횟수

잔업 횟수	기 혼	미 혼	학 생	계
1~2회	72(32.2)	104(30.7)	23(8.2)	200(23.6)
3~4회	23(10.1)	15(4.4)	4(1.4)	42(5.0)
5회이상	19(8.4)	11(3.2)	1(0.4)	31(3.6)
잔업없음	112(49.3)	209(61.7)	253(90.0)	574(67.8)
무 응 답	28	15	11	54

철야작업의 경우 미혼의 72%, 기혼의 64%, 심지어는 학생의 47%가 철야작업을 한다고 응답하고 있으며 대부분 한 달에 한 번 철야를 하지만 한 달에 2~3번 이상 철야하는 사람도 미혼의 29%, 기혼의 26%, 학생의 13%나 된다(〈표 Ⅲ-12〉참조). 특히 학생노동자의 경우 방학기간에는 학기중보다 철야작업이 늘어난다는 응답자가 61.4%로 나타나고 있는 바, 방학기간에는 잔업과 철야노동이 집중되어 학생들은 방학기간이 무섭다고 한다.

〈표 Ⅲ-11〉 일일 잔업 시간

잔업시간	기혼	미혼	학생	계
1시간	21(10.8)	19(6.1)	5(2.2)	45(5.8)
2시간	79(40.7)	76(24.6)	46(20.4)	246(31.8)
3시간	77(39.7)	150(48.5)	59(26.2)	286(37.0)
4시간	6(3.1)	24(7.8)	29(12.9)	59(7.6)
기타	11(5.7)	40(12.9)	86(38.2)	137(17.7)
무응답	61	45	67	173

〈표 Ⅲ-12〉 철야횟수

철야횟수	기혼	미혼	학생	계
한 달에 1번	56(73.7)	116(70.7)	168(87.2)	240(75.5)
한 달에 2~3번	16(21.1)	35(21.3)	9(11.5)	60(18.9)
일주일에 1번	1(1.3)	2(1.2)	0(0)	3(0.9)
일주일에 2~3번	1(1.3)	4(2.4)	1(1.3)	6(1.9)
일주일에 4번이상	2(2.6)	7(4.3)	0(0)	9(2.8)
무응답	41	43	49	133

그러나 이상과 같은 과중한 잔업과 철야노동의 실태는 부산지역 신발·의류산업 여성노동자의 구조적이고 일상적인 과중한 잔업·철야노동부담을 충분히 반영한 것으로 보기는 어렵다. 오히려 그것은 과소평가되었다고 보아야 한다. 왜냐하면 조사시점에서 원화절상압력과 수출주문량의 감소, 임금인상과 산업구조조정, 신발·섬유자본의 해외진출, 부동산투기열풍 등 대내외적 조건의 변화로 인하여 이 업종은 생산과 수출의 정체, 곧 불황상태에 있었기 때문이다. 잔업·철야는 호황기에 증가하고 불황기에 감소하는 경향을 보인다.

그러나 부산지역의 이 업종 여성노동자들이 겪는, 일상적으로 구조화된 잔업·철야의 과중한 부담과 표준노동시간자체의 사실상 연장 등 장시간 노동문제는 기본적으로 생계비에 훨씬 못 미치는 저임금구조와 자본의 전체적 지배의 관철 즉 민주노동운동의 취약성에 기인한다. 달리 말하면 장시간노동문제와 저임금문제는 동전의 양면일 뿐이다. 이같은 장시간노동문제의 심각성은 단순히 노동력의 직접적인 훼손과 파괴는 말할 것도 없고 특히 보호받아야 할 모성을 파괴하고 인격자체의 빈인간화를 야기한다는 점에서 심각한 사회문제로 제기되고 있다. 이를테면 출음을 견디기 위해 응답자의 68.6%가 피로회복제를, 8.4%가 잠안오는 약을 복용하며 8.6%가 줄면서 일한다는 사실(〈표 Ⅲ-13〉참조), 그리고 앞으로 어떤 교육과정에 참여하고 싶은냐는 질문에 대해 육아 및 성교육의 경우 기혼이 85.3%, 미혼이 77.9%, 정치·경제 등 시사문제의 경우 각각 77.7%, 94.4%, 노동법 강좌의 경우 각각 82.6%, 89.8%, 기술·기능교육의 경우 각각 90%가 교육을 원하지 않는다고 대답한 사실, 응답자의 절반정도가 일하는 도중에 과로로 쓰러지는 경우가 있거나 본

적이 있다고 응답하고 있다는 사실 등은 장시간노동의 심각성을 극명하게 보여주는 것이다. 과중한 장시간노동, 그것은 노동의 고통, 만성적인 정신적·육체적 피로누적, 증독성 약제의 일상적 복용과 건강파괴, 빈번한 산재, 작업장 외부에서의 사회생활로부터의 소외 등을 야기하는 주요한 근원이 되고 있다.

〈표 Ⅲ-13〉 철야 작업시 졸리면 어떻게 하는가?

졸음퇴치방법	기 혼	미 혼	학 생	계
커피나 피로회복제 (바카스)복용	89(82.4)	141(70.5)	65(53.3)	295(68.6)
찬물로 세수	9(8.3)	24(12.0)	29(23.8)	62(14.4)
잠 안오는 약 복용	1(0.9)	35(17.5)	0(0)	36(8.4)
졸면서 일한다	9(8.3)	0(0)	28(23.0)	37(8.6)
무응답	9	7	5	21

3) 노무관리

노무관리는 넓은 의미에서는 직장에 있어 노동에 대한 자본의 지배·통제체제전반을 말하고 그 주요영역은 일반적으로 고용과 배치, 교육훈련, 임금관리, 안전위생, 복지후생, 단체교섭과 노사협의, 직장규율과 고충처리, 의사소통 등을 포함하는 것이다. 그러나 여기서 주목하는 것은 부산지역 신발·의류산업의 여성노동자가 당면한 성의 부당한 차별에 기초한 노동통제의 측면에 한정된 것이다.

첫째, 생산직 여성노동자는 일반적으로 직급조차 부여되고 있지 않다. 미혼과 기혼·학생노동자를 포함하여 총응답자 900명 중 808명, 즉 92.2%가 아예 직급이 없다고 한다 (〈표 Ⅲ-14〉참조).

〈표 Ⅲ-14〉 직급

직 급	기 혼	미 혼	학 생	계
주 입	1(0.4)	1(0.3)	1(0.4)	3(0.3)
반 장	14(5.8)	4(1.1)	1(0.4)	19(2.2)
조 장	12(5.0)	31(8.9)	3(1.1)	46(5.3)
직급없음	215(88.8)	316(89.8)	277(98.2)	808(92.2)
무 응 답	13	2	10	25

자본은 여자라는 이유로 직접적 생산자로서 생산직노동자의 대부분을 차지하는 여성노동자에게 직급, 또는 직위조차 부여하지 않는다. 이것은 빈번한 노동이동과 짧은 근속년수

에 대한 자본의 대응전략이라는 측면도 없지 않지만 본질적으로 노무비용과 노무관리비용의 절약, 전근대적·전제적 노동통제에 의한 노동력지출경쟁과 노동강도의 강화를 도모하고 여성노동자의 무권리상태와 총체적인 성차별·억압의 구조를 유지하기 위한 자본의 노동통제전략에 기인하고 있는 것이다.

둘째, 성차별에 기초한 위계제가 노무관리의 조직·체계의 근간을 이루고 있다. 생산직 노동자의 대부분이 여성노동자임에도 불구하고 생산직에 있어서조차도 수직적인 성별분업 구조가 지배적 현실이다. 이것은 무엇보다도 노무관리조직에서 명확히 드러나고 있다. 직급이 없는 일반여성 노동자에서 조장, 반장, 직장에 이르는 현장조직의 경우 남성노동자에게는 조·반장, 직장, 주임 등의 승진체계가 부여되고 있으나, 여성노동자는 소수만이 기껏해야 조·반장에 이룰 수 있을 뿐이다. 주임급이상 계장에서 임원에 이르는 관리자조직 체계에서는 애당초 여성이 배제되어 있음은 두말할 필요도 없다. 현장조직안에서도 남성 노동자에게는 일반적으로 작업의 지시·감독·평가자의 역할이 주어지고 이와 관련해서 남성노동자에 상대적으로 높은 임금의 주어진다. 반면 여성노동자는 남성노동자의 명령과 감시·감독의 대상이 되고 있다. 다음과 같은 조사결과는 이러한 수직적 성별분업에 기초한 노동통제를 잘 보여주고 있다. 회사생활에서 누구의 눈치를 가장 많이 보는가라는 질문에 대해 조·반장이라는 응답자가 기혼의 50%, 미혼의 59%, 학생의 64%를 차지하고 그다음 생산관리자 또는 노무관리자, 주임으로 나타나고 있는 점(〈표 Ⅲ-15〉참조), 조·

〈표 Ⅲ-15〉 사업장내에서 누구의 눈치를 가장 많이 보는가?

변 인	기 혼	미 혼	학 생	계
조·반장	163(49.5)	120(58.5)	179(64.2)	462(57.4)
주 임	58(17.6)	23(11.2)	40(14.3)	121(14.4)
생산관리자(노무관리자)	106(32.2)	57(27.8)	59(21.1)	222(27.0)
안전관리원	2(0.6)	5(2.4)	1(0.4)	8(1.1)
무응답	25	50	13	88

반장이 시급조정 및 수당결정을 한다는 응답자가 미혼의 28.7%, 기혼의 37.6%, 학생의 18.7%에 이르고 있는 점(〈표 Ⅲ-16〉참조), 조·반장의 작업평가가 임금책정의 가장 중요한 요소라는 응답자가 미혼의 18%, 기혼의 24%로 나타나고 있는 점 등이다(〈표 Ⅲ-17〉참조).

이들은 자연적인 성차이를 인위적인 성차별로 전환시켜 최대한 차별화의 경제성과 노동자의 성별 분할지배전략(Divide & Rule Policy)을 추구하는 자본의 여성노동지배구조의 일부분을 보이고 있을 뿐이다.

〈표 Ⅲ-16〉 시급 및 수당결정

변 인	기 혼	미 혼	학 생	계
조·반장	86(37.6)	95(28.7)	50(18.7)	231(28.6)
주 입	18(7.9)	25(7.6)	18(6.7)	61(7.6)
계 장	44(19.2)	61(18.4)	24(9.0)	129(16.0)
노 무 과	78(34.1)	142(42.9)	166(62.2)	386(47.8)
사 장	3(1.2)	8(2.4)	9(3.4)	20

〈표 Ⅲ-17〉 임금책정시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요인

변 인	기 혼	미 혼	학 생	계
기능 및 숙련정도	125(51.0)	171(50.3)	85(33.2)	381(45.3)
근무경력	43(17.6)	94(27.6)	107(41.8)	244(29.0)
조반장의 작업평가	59(24.1)	61(17.9)	0	120(14.3)
학 력	2(0.8)	14(4.1)	64(25.0)	80(9.5)
남녀차이	16(6.50)	0	0	16(1.9)
무 응 답	10	14	0	24

셋째, 성희롱·성폭력 등 인원유린의 관행이 여전히 노무관리 또는 노동통제의 구조적 일환으로서 뿌리깊이 작용하고 있다. 출퇴근시 몸검사를 한다는 응답자가 총응답자의 62~63%에 이르고 있다. 특히 작업장에서 남성관리자가 여성근로자에게 성적 회롱을 하는 경우가 있다는 응답자가 미혼 15.8%, 기혼 13.2%이고 학생의 경우 21.2%에 이른다. 대부분이 남성관리자가 가끔씩 욕설을 하고 억압적으로 대한다고 응답하고 있으며 욕설은 물론 폭행도 자주 한다는 응답자도 미혼이 20.1%, 기혼 14.8%로 나타나며 학생노동자의 경우 학생이라는 이유로 욕설·구타등 함부로 대한다는 응답자가 과반수를 넘고 있다. 그리고 인터뷰조사결과에 의하면 각 업체들마다 이른바 안전관리요원이 다수 고용되어 출퇴근시 몸수색, 노동자 인원감시, 노동운동의 사전분쇄와 탄압 등 사실상 안전관리업무와는 무관한 노동통제를 수행하고 있으며 노동쟁의의 예방과 탄압 등 경우에 따라서는 안전관리요원만이 아니라 인근지역 불량배가 동원되기도 한다는 점이 주목된다. 이처럼 여전히 몸검사, 욕설, 구타, 성희롱 등의 관행은 부산지역 신발·의류자본의 노무관리 또는 노동통제가 여전히 전근대적인 온정주의와 전제성, 가부장제적인 성차별, 군사문화적 폭력성 등에 크게 의존하고 있음을 보여주고 있는 것이다.

넷째, 학생노동자의 경우 별도의 노동통제방식이 동원된다. 학생담당주임을 중심으로 노무과가 직접 통제하거나 현장안에서 학생조직을 만들어 간접적으로 통제한다. 학생조직은 예컨대 공장내의 학생대표로서 총학생장이 있고 그 밑에 몇개 라인을 합쳐 선출한 부서대표인 부서장, 그 아래에 각 라인별 한 사람씩 기장이 있다. 여기서도 자본에 의한 노동통

제가 노동자에 의한 노동자의 통제라는 형식을 취하고 따라서 자본과 노동간의 대립관계를 노동자와 노동자의 대립관계로 전화시키고 있음을 알 수 있다.

다섯째, 노무관리의 일환으로 최근 각급관리자층이 참여하는 여성노동자들의 취미·동호인 씨클활동이나 큰언니제도(big sister)등 비공식적 리더의 관리, 사내체육대회, 교양강좌, 휴가캠프 등 다양한 형태로 인간관계를 중시하는 새로운 방식이 도입되고 있다. 그러나 이것은 일부 중·대기업의 경우에 해당되며 이러한 새로운 노무관리형태 역시 기본적으로는 자주적·민주적 노동조합운동을 억제하는 데 그 초점을 두고 있는 것이 부인할 수 없는 현실이다.

4) 기계화, 자동화와 생산성향상운동

이미 살펴본 바와 같이 국내의 경제환경의 변화에 따라 축적위기에 직면한 신발·섬유 부문의 자본은 한편으로 생산과 고용을 대규모로 축소조정하고 위기 부담을 노동자에게 직접적으로 전가시키면서 다른 한편으로 산업합리화의 일환으로 생산성향상운동과 기계화·자동화를 추진하여 노동생산성의 증대를 도모하고 노동자의 저항을 무력화하고자 한다.

① 기계화·자동화에 의한 노동통제와 인원감축

앞서 지적한 바와 같이 기존 신발·의류산업의 특성, 특히 생산공정상의 특성과 함께 자본의 유기적구성이 상대적으로 낮고 저임금과 열악한 노동조건에 의존하는 노동집약적 성격때문에 기계화나 자동화의 수준이 상대적으로 낮다. 특히 국내 대도시를 중심으로 상대적 과잉연구가 광범하게 존재하고 있고 노동조합운동이 취약하며 저임금노동력의 충분한 공급과 저임금체제가 보장되는 한, 기계화와 자동화의 진전은 본격적으로 추진되기는 어렵다. 그러나 최근 이 산업의 자본은 국내의 경영환경의 변화로 인하여 저임금노동력과 수출시장을 찾아 자본수출을 추진하는 한편, 부분적으로 새로운 기계도입과 자동화를 추진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이를테면 자기 작업부서에 새로 도입된 기계가 있다는 응답이 45%에 이르고 신기계도입으로 자기 일거리를 기계(예컨대 풀칠하는 기계나 실밥 꿰는 기계 등)가 대신하는 경우가 있다는 응답이 56%로 나타나고 있다.

그런데 현재의 작업량이 너무 과중하거나 많은 편이라는 응답이 55.4%나 되는데도 새 기계 도입으로 예전에 비해 작업량이 많이 늘어났다는 응답이 41.8%나 되고 조금 늘어났다는 응답이 39.5%로 나타나(〈표 Ⅲ-18〉참조) 기계화나 자동화가 생산성을 증가시키는 반면에 오히려 노동자의 노동량을 절대적으로 증가시켜 노동부담을 가중시키고 노동강도를 강화시키고 있는 것이다.

〈표 Ⅲ-18〉 작업량(미혼/기혼/학생/합계)

현재의 작업량	기계도입후 작업량		
	사례수	사례수	
너무과중하다	130(15.2)	예전과 그대로	58(18.0)
많은 편이다	357(40.2)	조금 늘었다	130(39.5)
적당하다	383(43.5)	많이 늘었다	140(41.8)
적은편이다	11(1.0)	줄었다	2(0.6)
무응답	11(1.0)	무응답	12

더우기 신기계 도입으로 인하여 작업부서의 인원이 줄었다는 사람이 14.0%로 나타났고, 일거리가 줄거나 새로운 기계도입으로 인한 작업장내의 변화양상은 작업부서를 합치고 인원을 줄이든지(응답자의 45.8%), 더이상 인원을 받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고(23.5%), 기존 작업부서를 나누어 생산량경쟁을 시킨다는 응답도 16.7%이다(〈표 Ⅲ-19〉참조). 이것은 자본의 의도가 기계화·자동화 추진을 통해 고용감소효과와 노동력지출경쟁에 의한 노동강화효과에도 있음을 반증하는 것이다.

〈표 Ⅲ-19〉 새로운 기계도입에 따른 작업장내의 변화

작업장 변화	사 례 수	%
작업부서들 줄이거나 작업장 폐쇄	77	14.0
작업장 부서를 합치면서 인원을 줄인다.	251	45.8
작업부서들 나누어서 생산량 경쟁시킨다.	91	16.7
인원을 더 이상 받지 않는다.	129	23.5
무 응 답	128	

이들테면 D사의 경우 재봉부서는 종래 1개 라인 30명이던 것을 2개 라인을 합쳐 50명을 1개 라인으로 만들어 10명을 줄이고, 다시 4개 라인을 합쳐 80명을 1개 라인으로 만들어 30명이 줄어드는 과정을 겪었다고 한다. D사의 경우 기계화·자동화로 인한 인원감축의 실태를 보면 88년초 약 1만명이던 종업원수가 89년말에는 5,900명, 90년 6월 현재는 5,000명으로 줄어 불과 2년 사이에 약 4,000명의 인원이 감축되었다. 물론 이 경우 인원감축은 주로 자연감원의 형태를 취하고 있으며, 인원감축의 결과 남은 인원에게는 노동시간연장과 노동강도의 강화가 기다리고 있을 뿐이다.

문제의 핵심은 기계화·자동화의 추진 결과가 노동생산성의 향상과 함께 노동시간의 단축, 노동강도의 약화, 실질임금의 증대로 나타나지 않고 오히려 그 반대로 나타나고 있다는 점이다.

② 생산성향상운동

최근 대상업종의 자본에 의한 생산성향상 노력의 중심은 기계화와 자동화를 통한 노동

생산성의 증대에 있다기 보다 오히려 기계화·자동화와는 관계 없는 노동능률의 향상, 기계 및 원료이용효율의 개선, 제품개선 등 물적 생산성의 증대에 있다고 해도 지나친 말은 아니다. 따라서 이러한 이른바 ‘생산성향상운동’의 본질은 노동강화에 의한 자본의 노동지배강화에 있을 수밖에 없다.

최근 신발업체의 경우, 시간·동작연구 등 과학적 관리기법의 도입과 공정의 합리화가 추진되고 있으며 대부분의 업체가 이를 위해 생산기획실, 생산기획과, 기술연구소 등 기술개발부서를 두고 생산성향상운동이 광범하게 추진되고 있다. 이같은 ‘생산성향상운동’은 다양한 형태로 나타나고 있으나 여기서는 인터뷰조사에 근거하여 그 대표적인 유형으로 볼 수 있는 S사의 ‘PQM’운동을 중심으로 그 특징과 성격을 검토한다. 노동자들이 이른바 ‘죽발 많이 빼내기 운동’이라고 부르는 ‘PQM’운동은 “임금상승·원자재가격 상승·원화절상 등의 압력에 대처하고 경쟁력을 향상시키기 위해 원가압박요인을 기업내부에서 흡수”하는 데 그 목적을 두고 있다. PQM의 내용은 제품공정 및 동작·시간분석을 통해 가장 효율적인 공정 및 표준시간을 산출해서 노동자들에게 표준목표량을 할당해서 생산량을 증가시키는 것이다. PQM 훈련단계별 표준시간과 목표생산량이 부여되는 개인별 훈련과정을 보면, “개인의 기능향상”, “모든 사람들의 숙련공화”라는 구호 아래 등급화된 4단계를 거친 노동자에게 졸업의 형식을 통해 기능인정서를 주고 PQM수당이 지급된다. 이같은 PQM운동을 통해 일인당 생산성이 상당히 증가하고 있는 것도 사실이다.

그러나 첫째, 일의 속도와 목표량이 과중하게 책정되어 노동강도가 크게 강화된다. 예컨대 재봉과의 경우 평상시의 600~650족에서 1,000~1,300족으로, 가공과의 경우 2,100족에서 2,500~2,600족으로 목표량이 증대된다. 또 재봉공정의 목표량증대는 재단, 가공, 준비부서에 파급되어 모든 부서 노동자의 노동강도가 높아지는 것이다. 각 라인에 분침과 초침만 있는 시계를 두고 하루노동을 몇분 몇초로 계산하여 평가함에 따라 노동자는 “생각없는 기계”같은 사람으로서 정해진 시간에 목표량을 달성해야 한다는 압박감과 목표량 미달시의 각종 인격모독 등에 시달리게 된다는 것이다. 둘째, PQM운동은 노동강도의 강화를 초래할 뿐만 아니라, 노동시간을 연장시킨다. 목표량을 채우지 못한 노동자는 조기출근, 연장근로, 점심시간이나 휴식시간의 잠식을 강요당하고 있는 실정이다. 셋째, PQM수당이 지급되지만 이것은 실제로 강화된 노동강도나 연장된 노동시간, 그리고 일인당 증가된 생산량에 비하면 아무런 의미도 없는 것이다.

이같은 이른바 ‘생산성향상운동’은 “회사가 살아야 노동자도 산다”라는 노사공동운동을 강조하면서 K사의 ‘점프-125’, P사의 ‘참마음운동’, T사의 ‘뚝순이 운동’ 등 다양한 형태로 전개되고 있으나 그 본질은 “피땀짜기작전”이라는 노동자들의 말에서 보듯이 노동강도의 강화와 노동시간의 연장에 의한 절대적 잉여가치생산의 증대에 있는 것일 뿐이다.

끝으로 이같은 생산성향상운동으로서 종전에 광범하게 이루어지던 Q·C분임조활동은 비중과 실제 내용면에서 퇴색되어 있다. 원래 품질의 향상-관리를 목적으로 한 Q·C제도는 70년대 중반이후 공장새마을운동과 결합되어 노동조합운동과 노동자의 저항에 대응하고 지배이데올로기를 재생산하는 Q·C‘운동’으로 나타났다. 그 이후 새마을운동의 퇴색과 함께 품질관리는 품질관리과나 검사과의 전문요원에 의해 이루어지고 Q·C활동은 담당관리자의 통제하에서 노동자에게 형식적인 자율성을 부여하는 소집단활동으로 바뀌었지만, 비용만 많이 들고 성과는 적은데다 최근 축적위기상황하에서 PQM등과 같은 새로운 형태의 생산성향상운동이 전개되면서 그 의의가 축소되는 경향을 보이고 있다. 그러나 Q·C활동은 노동자에게 여전히 커다란 부담이 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Q·C활동을 하고 있다는 응답이 54.8%인데, Q·C활동을 점심시간에 한다는 응답도 10.2%나 된다. 응답자의 약 56%가 20~30분 정도 Q·C활동을 하며 40분이상 한다는 응답도 26.7%나 되며 한달에 4번 한다는 응답이 34.7%, 1~2번이 56.1%이다. Q·C활동시간에 대해 아무것도 주지 않는다는 응답이 61.4%, 차비·식대의 지급이 23.4·, 임금지급이 15.2·이다. 요컨대 Q·C활동은 점심시간이나 작업시간이후의 시간을 침해하고 그것도 대부분 공짜로 강요되고 있는 실정이라면 노동자에게는 일차적으로 노동강화를 의미하는 것일 뿐이다.

5) 작업환경

작업시설을 중심으로 신발·의류산업 여성노동자의 작업환경을 보면 누가 보아도 지극히 열악한 상태임을 알 수 있다.

유독성 화공약품의 사용에 따른 두통이 응답자의 43.9%, 눈이 따갑다가 33%, 먼지로 인한 증상으로 목이 아프다는 응답이 46.2%, 기침·가래가 끊는다가 25.7%, 작업장의 소음으로 큰소리로 말해야 알아들을 수 있다는 응답이 42.8%, 환풍기시설이 절대부족하여 오는 건강에 대한 호소가 62.5%, 작업장이 너무 덥거나 춥다는 응답이 59%, 계속 앉아서 일하기 때문에 소화불량이나 손목관절이 아프다는 응답이 60%에 이르고 있다는 사실 등은 작업환경의 열악성을 극명하게 보여주는 것들이다. <표Ⅲ-27 참조>

이러한 열악한 작업환경은 앞서 검토한 장시간노동 및 높은 노동강도와 상승작용함으로써 여성노동자의 건강을 심각하게 위협하고 빈번하게 산재를 발생시키는 주요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다. 대부분의 여성노동자들은 작업후 골치가 아프거나 머리가 멍하고 눈이 피로하고 온몸이 빠근하고 하품과 졸음, 손목·발목 통증에 시달리고 있다. 뿐만 아니라 온몸에 힘이 빠지고 정신집중이 안되고 허리가 아프며 현기증이 나며 다리가 휘청거린다는 응답도 80%이상이나 된다. <표Ⅲ-28 참조> 특히 소화불량과 위장병, 변비, 두통, 빈혈, 무좀

등이 특히 심하게 나타난다고 한다. <표Ⅲ-29 참조> 또 미싱바늘에 손이 찢리거나 손가락이 절단되며 화상을 입거나 신체의 일부분이 기계에 깔려 들어가는 등 산재사고가 빈번히 발생하고 있으나 안전관리에 대한 회사측의 노력은 아직도 낮다고 한다.

이같은 여성노동자의 건강과 안전은 물론 모성보호를 위협하는 열악한 작업환경이 크게 개선되지 못하는 것은 저임금과 장시간노동, 높은 노동강도 등 열악한 노동조건, 한마디로 절대적 잉여가치생산에 의존하고 있는 부산지역 섬유·신발자본의 특성, 그간의 광범한 상대적 과잉인구의 존재, 작업환경개선에 대한 노동(조합)운동쪽의 상대적 무관심과 노동조합운동의 취약성에 기인한다고 볼 수 있다. 열악한 작업환경과 그에 따른 산재, 직업병에 대한 노동자·사용자·정부의 대책이 절실히 요청되며 작업환경개선문제는 특히 노동운동쪽의 당면한 실천과제로서 주목되어야 할 것이다.

3. 노동시장의 실태

1) 노동자 구성

부산지역 제조업 생산직에서 노동자의 혼인상태별 구성을 보면 미혼이 60.5%, 기혼이 39.5%를 차지하고 있으며 신발과 섬유·의복산업의 경우 각각 미혼이 58.8%, 71.3%, 기혼이 41.2%, 28.7%를 점하고 있다.<표Ⅲ-20>참조

신발과 섬유·의복산업 어느 경우든 기혼여성의 비중이 급속하게 증대되어 왔으며, 특히 신발부문에서의 기혼의 비중이 높다. 그것은 저임금 미혼노동력의 비중감소와 함께 무엇보다도 월급으로는 생활유지가 곤란하거나(응답자의 68.1%), 가장이 없어서 자신이 생계부담을 지거나(11.9%), 가장이 실업상태에 있거나(9.4%)하기 때문이다.<표Ⅲ-21> 참조).

<표Ⅲ-20> 부산지역 제조업 생산직 여성근로자의 혼인상태별 구성

산 업	미 혼	기 혼	계
제 조 업	109,034(60.5)	71,239(39.5)	180,273
고 무 제 품	58,428(58.8)	40,964(41.2)	99,392
섬 유 · 의 복	35,751(71.3)	14,759(28.7)	50,510

자료 : 부산상공 「부산지역 제조업체 현황」 1990.

〈표 Ⅲ-21〉 현재의 직장에 다니게 된 동기(기혼)

변 인	사 례 수
남편의 월급으로는 생활유지 곤란	160(68.1)
가장이 실업의 상태에 있기 때문	22(9.4)
남편이 없어서 생계 부담을 해야 함	28(11.9)
기 타	25(10.6)
무 응 답	20

미혼여성노동자 속에는 18세 미만의 연소여성노동자도 포함되어 있는데 그 대부분은 산업체 부설학교 또는 일반실업계고교 부설특별학급에 다니는 학생노동자이다. 부산지역의 경우 1988년 문교부 통계에 따르면, 학생노동자가 4개교의 산업체 부설학교에 2,598명, 9개의 실업계 고교에 부설된 161개의 특별학급에 9,347명에 달하고 있다. 이처럼 부산지역에 학생노동자가 많은 것은 주종산업인 신발·섬유(의류)부문에서는 타산업부문에 비해 상대적으로 높은 노동강도·저임금 장시간 노동 등 열악한 노동조건으로 인해 저임금노동력의 부족현상이나 노동이동문제가 상대적으로 크게 제기되고 따라서 값싼 노동력의 지속적, 안정적 확보를 목적으로 산업체 학교 또는 특별학급이 다수 개설, 이용되어왔기 때문이다.

2) 모집 및 채용과정

대상업종 노동자의 입직경로를 보면 연고관계를 통한 입직이 미혼 74%, 기혼 68%, 학생 39%로 나타나고 있어 전근대적인 연고입직관행이 지배적임을 알 수 있다(〈표 Ⅲ-22〉 참조). 1년 이상의 경력을 가진 숙련공의 경우 스카웃에 의한 입직이 많지만 이 역시 연고채용이 대부분이다. 이같은 노동시장에 있어 연고채용위주의 입직현상은 연출 중심의 인간관계가 중시되는 사회문화적 특질의 소산이면서 최근에는 저임금의 생산적노동자를

〈표 Ⅲ-22〉 입직경로(기혼, 미혼)

입 직 경 로	기 혼	미 혼	계
친구, 친지 및 이웃소개	171(68.1)	259(74.4)	430(71.8)
직접 회사에 신청	52(20.7)	44(12.6)	96(16.0)
회사간부소개	22(8.8)	41(11.8)	63(10.5)
노동부 소개	1(0.4)	3(0.9)	4(0.7)
직업안내소	0	1(0.3)	1(0.2)
기 타	5(2.0)	0	5(0.8)
무 응 답	4	6	10

확보하기 위한 수단으로 적극 이용되고 있다. 이러한 연고채용위주의 입직은 직접적인 노동통제와 가부장제적, 은정주의적 노사관계를 유지하는 요인으로서, 대등하고 자율적인 근대적 노사관계의 확립에 있어 저해요인으로 작용하는 경우가 많다.

특히 기혼여성노동자의 경우 연고채용에 의하지 않고 직접 회사에 신청해서 입직하는 경우가 20.7%에 이르고 있음은 주목된다. 이처럼 취업과정에서 공공적인 직업안정기구의 역할이 거의 전무하다는 것은 근대적인 합리적 근로계약의 체결을 저해하는 하나의 요인이 됨은 부인할 수 없다.

학생근로자의 취업과정은 학교와 밀접한 관계를 갖기 때문에 매우 특수하다. 우선 학교 입학경로를 보면 중학교 선생의 추천이 26.1%, 선배언니의 소개가 26.1%를 차지하여 응답자의 52.3%가 이전의 학교를 통해 입학하고 있다. 이는 여름방학때부터 산업체학교와 기업이 직접 농촌중학교와의 협조망을 구축하여 모집하는 데 따른 것이다. 그 외에 명절이나 방학을 이용하여 학생들이 직접 모집하도록 하거나 평소에 수업이나 회사근무를 빠지면서 신입생모집에 나서야 하는 경우도 흔히 있는 일이다. 이에 따라 같은 중학교 출신으로 같은 산업체학교에 다니면서 같은 회사에 고용되는 학생이 100명이상이 되는 것이 보통이다. 이들의 학교입직경로를 보면 기업체에서 직접 산업체부설학교를 운영해서 같은 회사, 같은 학교를 다니는 경우가 38.5%, 먼저 취학후 그 학교의 소개로 직장에 다니게 된 경우가 17.0%,(특별학급과 사회교육시설의 경우) 친구·친지 및 가족소개가 38.9%를 보이고 있다. 이 경우 특히 주목되는 것은 학교가 직접 자본을 위해 저임금미성년노동력을 기업체에 넘기는 기능을 수행하고 있다는 것이다.

3) 임금 및 고용조건

임금이 노동력의 재생산비용에 미치지 못하면 노동자가계의 노동력재생산은 곤경에 처한다. 이에 따라 노동자는 생계비 부족분을 조금이라도 메꾸기 위해 과도한 잔업, 철야, 특근 등을 하지 않을 수 없고 노동자가족의 2인 이상 취업경향도 나타나지 않을 수 없다.

사실 여성노동자의 임금 역시 적어도 원리적으로는 자기와 자기가족노동력의 재생산비용을 기준으로 결정되어야 할 것이다. 이와는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낮은 독신여성노동자 최저생계비를 기준으로 보더라도 대상업종의 대부분의 여성노동자는 이에 훨씬 못미치는 임금을 받고 있다. 즉 89년 한국노총이 조사한 독신여성 최저생계비 275,370원에 미달하는 28만원이하가 미혼의 경우 85.0%, 기혼의 74.7%, 학생의 경우는 전부이다.(〈표 Ⅲ-23〉 참조).

〈표 Ⅲ-23〉 월평균 임금

임 금	기 혼	미 혼	학 생	계
12~14만원	1(0.5)	3(1.2)	15(6.9)	19(2.9)
14~16	0	7(2.8)	20(9.2)	27(4.2)
16~18	1(0.5)	2(0.8)	36(16.6)	39(6.0)
18~20	6(3.3)	31(12.6)	55(25.3)	92(14.2)
20~22	44(24.2)	56(22.7)	47(21.7)	147(22.8)
22~24	30(16.5)	39(15.8)	33(15.2)	102(15.8)
24~26	35(19.2)	38(15.4)	11(5.1)	84(13.0)
26~28	19(10.4)	34(13.8)	•	53(8.2)
28~30	15(8.2)	18(7.3)	•	33(5.1)
30~32	11(6.0)	4(1.6)	•	9(1.4)
32~34	4(2.2)	5(2.0)	•	15(2.3)
34~36	5(2.7)	1(0.4)	•	6(0.9)
36이상	11(6.0)	9(3.6)	•	20(3.1)

이러한 임금수준이 얼마나 낮은가는 근로자가구당 월평균 가계지출(경제기획원통계) 631,281원이나 3인과 2인가구의 월평균가계지출 524,962원과 417,416원과 비교해보면 보다 명확히 드러난다.

성별 임금격차를 1988년 노동부 매월노동통계조사보고서에 따라 보면 여성의 월평균급 여총액은 제조업의 경우 남성의 58.2%, 섬유업종의 경우 60.2%, 의복의 경우 76.8%, 신발 78.7%로 그간의 성별임금격차의 축소경향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임금격차가 크다.

앞서 본 여성노동자의 저임금과 이같은 임금격차는 넓게 보면 대상업종의 여건과 산업의 속성, 대도시의 광범한 상대적 과잉인구(이를테면 부산의 비경제활동인구의 절반에 이르는 가사노동인구만도 89년에 약 68만명이 존재하고 있다), 전근대적 노사관계와 기업내외의 가부장제적인 성차별구조 및 노동운동의 취약성에 기인하는 것이다. 특히 성별 임금격차는 이러한 일반적 요인외에 다음과 같은 자본의 성별 노동력차별화정책에 크게 기인한다. 첫째는 일반적으로 남성에게 기술·숙련직, 여성에게 단순미숙련직 등, 직능·직무차별에 의해 여성의 저임금이 정당화되고 임금격차가 야기되는 측면이다. 둘째는 승진·승급차별에서 오는 임금격차이다. 이미 본 바와 같이 여성노동자의 대부분은 직급이 없고 기껏해야 소수가 조반장에 승진할 수 있을 뿐이기 때문이다. 셋째는 각종 수당지급에서의 남녀차별이다. 기본급에서 뿐만 아니라 수당과 상여금에 있어서도 차별을 받고 있다는 점이다. 이를테면 여성은 기본수당과 초과근로수당뿐이고 수당과 시급지급에 있어 관리자의 자의가 크게 개입되고 있는 실정이다. 넷째는 대부분 결혼전후에 퇴직하므로 근속년수가 짧아 임금수준이 상대적으로 낮다는 점이다. 이같은 짧은 근속년수는 열악한 노동조건과 작업환경은 물론 결혼·임신퇴직제 등과 밀접한 관련이 있다. 다섯째 특히 기혼여성노동자

는 대부분 결혼전의 생산직 취업경험으로 일정한 숙련을 가지고 있는데도 결혼을 전후로 근속년수가 단절되어 이전의 경력을 인정받지 못하고 미숙련 여공의 초임을 받는 것이 보통이다. 결혼전에 직장경험을 가지고 있다는 응답이 66.8%인데, 이들 중 결혼전에 신발, 섬유·의복 곧 동일산업에서 일했다는 응답이 75%로서 대부분이다. (<표 Ⅲ-24> 참조)

〈표 Ⅲ-24〉 결혼전 직장형태(기혼)

직 장	사 례 수
신발·교무화학	51(37.2)
섬유·의복	56(36.5)
사무직 및 경리	22(16.1)
판매, 서비스직	10(7.3)
기타	4(2.9)
무응답	4

〈표 Ⅲ-25〉 결혼전 근속년수(기혼)

근 속 년 수	사 례 수
1년 이내	6(4.4)
1~3년	51(37.8)
3~5년	49(36.3)
6년 이상	29(21.5)
무응답	8

또 결혼전 근속년수가 3년 이상이라는 응답이 57.8%인데도 불구하고 결혼전의 경력은 인정 받지 못하고 있다는 응답이 62.7%나 된다(<표 Ⅲ-25>참조). 이런 사실들 역시 기혼여성노동자의 저임금과 성별 임금격차문제의 소재를 잘 보여주고 있는 것이다. 여섯째, 학생노동자의 경우 특징적인 것은 다수가 입학전인 겨울방학중에 취업하는데 이들에게 정식 입학후 임금의 70%만이 지급된다고 한다.

임금지급형태를 보면 일당제가 대부분이다. 이를테면 미혼의 경우 69.3%가 일당제, 23.9%가 월급제라고 대답하고 있다.

끝으로 강조되어야 할 것은 부산지역 신발·의류산업에서 보는 것처럼 생산직 노동자의 대부분이 여성노동자인 경우 기업내 임금차별이 직접적으로 눈에 보이지 않지만 사실은 가부장제적 성차별의 사회구조가 이 업종의 기업내 저임금 구조형성의 중요한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다는 점과 이 업종부문의 성차별과 억압에 기초한 장시간노동과 높은 노동강도까지 고려한다면 부산지역 여성노동자의 저임금은 기업내외의 성차별 억압구조에 크게 기인한다는 점이다. 회사에서 심각하게 제기되는 여성문제로서 남자와 비슷한 강도의 일은 하는데 여자라는 이유로 임금이 적다는 문제와 근속년수가 오래되어도 승진이 되지

않는다는 응답이 기혼과 미혼 모두 약 63%에 이르고 있는 것은 이 점을 단적으로 보여 주고 있다.

4) 노동이동

부산지역 신발·섬유의류산업의 여성노동자들은 '철새'로 불릴 정도로 이직률이 높다. 그것은 무엇보다도 임금수준이 매우 낮고 자본이 요구하는 종래와 같은 저임금·단속미숙련 노동력은 언제나 부족한 상태에 있으며, 승진·승급의 기회가 대부분 차단되어 있다는 점, 그리고 결혼, 퇴직 등에 따른 것이다. 따라서 저임금과 노동이동의 악순환이 되풀이되며 근속년수가 짧지 않을 수 없다. 현 직장에서 근속년수가 1년 미만이라는 응답이 미혼은 18.0%, 기혼은 15.7%에 이르고 1~3년이라는 응답이 미혼 25.1%, 기혼 46%, 3~5년이 미혼 43.5%, 기혼 32.9%로 나타나고 있다.

학생노동자의 경우 일단 입학하면 졸업때까지 해당회사를 다녀야 하는 규정에 따라 취학기간중에는 노동이동이 적지만 졸업과 동시에 대부분 직장을 그만두기 때문에 졸업시기가 되면 업체들은 신규노동력 확보에 주력한다. ((표 III-26)참조)

〈표 III-26〉 졸업후 진로(학생)

변 인	사 례 수
사무직	166(59.9)
현직장에 그대로 근무	34(12.3)
대학진학	73(26.4)
결 혼	4(1.4)
무 응 답	15

VI. 부산지역 여성노동문제 해결을 위한 당면과제

노동시장과 노동과정의 문제를 중심으로 한 당면과제는 다음과 같다.

(1) 고용의 안정성 확보

앞서 본 바와 같이 부산지역 신발과 섬유·의류산업의 여성노동자들은 심각한 고용불안

(표 III-27) 작업장 시설과 관계되는 건강문제

구분	예				아니오				총계
	기혼	미혼	근로학생	소계	기혼	미혼	근로학생	소계	
①환풍기 시설이 부족하다	151(17.7)	220(25.8)	162(19.0)	533(62.4)	75(8.8)	120(14.1)	126(14.8)	321(37.6)	854(100.0)
②행광등 불이 어두워서 작업시 눈이 피로하다	38(4.6)	97(11.6)	74(8.9)	209(25.1)	176(21.1)	236(28.3)	212(25.5)	624(74.9)	833(100.0)
③작업장이 너무 덥거나 너무 춥다	120(14.3)	211(25.1)	172(20.5)	502(59.8)	98(11.7)	123(14.6)	116(13.8)	337(40.2)	839(100.0)
④의자에 등받이가 없어서 허리나 등뼈가 자주 아프다	98(12.4)	186(23.5)	147(18.6)	431(54.5)	103(13.0)	131(16.6)	126(15.9)	360(45.5)	791(100.0)
⑤계속 서서 일하기 때문에 다리통증이나 관절염이 있다	96(11.7)	176(21.4)	154(18.7)	426(51.8)	115(14.0)	152(18.5)	129(15.7)	396(48.2)	822(100.0)
⑥계속 앉아서 일하기 때문에 소화불량이나 손목관절이 아프다	122(15.7)	196(25.3)	147(18.9)	465(60.0)	179(10.2)	115(14.8)	117(15.1)	311(40.0)	776(100.0)
⑦뱀새가 지독해서 머리가 멍하고 속이 메스껍다.	107(13.2)	169(20.8)	148(18.2)	424(58.6)	96(11.8)	159(19.6)	134(16.5)	299(41.4)	723(100.0)

〈표 Ⅲ-28〉 작업후 나타나는 건강 증상

변인	자주 그렇다						가끔 그렇다						전혀 그렇지 않다						총 계					
	미혼		근로학생		소계		기혼		미혼		근로학생		소계		기혼		미혼			근로학생		소계		
	기혼	미혼	기혼	미혼	기혼	미혼	기혼	미혼	기혼	미혼	기혼	미혼	기혼	미혼	기혼	미혼	기혼	미혼		기혼	미혼	기혼	미혼	
구분																								
가) 팔찌가 아프거나 머리가 멍하다	60(7.2)	106(12.8)	77(9.3)	243(29.3)	133(16.0)	200(24.1)	190(22.9)	523(63.0)	21(2.5)	24(2.9)	18(2.2)	63(7.6)	829(100.0)											
나) 다리가 휘청하다	30(3.8)	88(11.1)	59(7.4)	177(22.3)	104(13.1)	171(12.5)	159(20.0)	434(54.6)	57(7.2)	60(7.5)	68(8.5)	185(23.2)	796(100.0)											
다) 허풍이 나고 졸음이 온다	72(8.8)	139(17.0)	148(18.1)	359(43.9)	113(13.8)	166(20.3)	128(15.7)	407(49.8)	23(2.8)	18(2.2)	10(1.2)	51(6.2)	817(100.0)											
라) 눈이 피로하다	117(13.9)	212(25.3)	183(21.8)	512(61.0)	87(10.4)	109(13.0)	92(11.0)	288(34.4)	19(2.3)	9(1.1)	11(1.3)	39(4.7)	839(100.0)											
마) 온몸이 뻣근하다	75(9.1)	157(19.0)	127(15.4)	359(43.5)	108(13.1)	153(18.5)	146(17.7)	407(49.3)	28(3.4)	19(2.3)	12(1.5)	59(7.2)	825(100.0)											
바) 땀기름이 난다	31(3.8)	73(9.1)	77(9.6)	181(22.5)	94(11.7)	187(23.2)	150(18.6)	431(53.5)	71(7.8)	64(7.9)	59(7.3)	194(23.0)	806(100.0)											
사) 숨이 가쁘다	23(2.9)	37(4.7)	40(5.1)	100(12.7)	50(6.3)	102(12.9)	101(12.6)	263(32.0)	116(14.6)	182(23.0)	141(17.8)	439(55.4)	792(100.0)											
아) 손목이나 발목이 아프다	68(8.3)	119(14.5)	100(12.2)	287(35.5)	100(12.2)	151(18.4)	146(17.8)	397(48.4)	38(4.6)	61(7.4)	39(4.7)	138(16.7)	822(100.0)											
자) 어깨, 팔, 다리가 부신다	68(8.3)	135(16.4)	119(14.5)	322(39.2)	115(14.0)	153(18.6)	127(15.5)	395(48.1)	27(3.3)	40(4.9)	38(4.6)	105(12.8)	822(100.0)											
사) 손발이 떨린다	23(2.9)	44(5.6)	36(4.6)	103(13.1)	44(5.6)	109(14.0)	94(12.0)	247(31.6)	8(15.1)	163(20.9)	150(19.2)	431(55.2)	781(100.0)											
카) 생각이 집중되지 않는다	22(2.8)	70(8.9)	72(9.2)	164(20.9)	66(11.0)	162(20.7)	160(20.4)	408(52.1)	81(10.3)	83(10.6)	48(6.1)	212(27.0)	784(100.0)											
타) 온몸에 힘이 빠진다	40(5.0)	116(14.4)	100(12.5)	256(31.9)	106(13.2)	166(20.7)	143(17.8)	415(51.7)	51(6.4)	42(5.2)	39(4.9)	132(16.5)	803(100.0)											
파) 직전의 것이 생각나지 않는다	13(1.7)	32(4.2)	33(4.3)	78(10.2)	65(8.5)	116(15.2)	109(14.3)	290(38.0)	106(13.9)	156(20.4)	134(17.5)	396(51.8)	764(100.0)											
하) 허리가 아프다(요통)	62(7.6)	117(14.4)	93(11.5)	272(33.5)	114(14.1)	153(18.9)	131(16.2)	398(49.2)	33(4.1)	49(6.0)	59(7.3)	141(17.4)	811(100.0)											

(표 Ⅲ -29) 입사후 갖게된 질병

구분	예				아				니				오		총 계
	기	미	혼	소	기	미	혼	소	기	미	혼	소	근로학생	소	
범 인	103(12.2)	186(21.9)	135(16.0)	423(50.1)	115(13.6)	155(18.3)	152(18.0)	422(49.9)	846(100.0)						
①위장병	41(4.8)	87(10.2)	91(10.6)	219(25.6)	180(21.1)	255(29.8)	201(23.5)	636(74.4)	855(100.0)						
②식욕감퇴	74(8.7)	174(20.4)	150(17.5)	398(46.6)	147(17.2)	168(19.6)	142(16.6)	457(53.4)	855(100.0)						
③변비	28(3.3)	34(4.0)	36(4.2)	98(11.5)	193(22.6)	308(36.0)	256(29.9)	757(88.5)	855(100.0)						
④치질	93(10.9)	155(18.1)	129(15.1)	377(44.1)	128(15.0)	187(22.1)	163(19.1)	479(56.4)	884(100.0)						
⑤두통	72(8.4)	144(16.9)	139(16.3)	355(41.6)	149(17.4)	197(23.1)	153(17.9)	478(56.0)	855(100.0)						
⑥빈혈	20(2.3)	38(4.4)	37(4.3)	95(11.0)	201(23.5)	304(35.6)	255(29.8)	760(88.9)	855(100.0)						
⑦호흡기 질환	21(2.5)	65(7.6)	32(3.7)	118(13.8)	200(23.4)	277(32.4)	260(30.4)	737(86.2)	855(100.0)						
⑧기관지염	52(6.1)	84(9.8)	71(8.3)	207(24.5)	169(19.8)	258(30.2)	221(25.8)	648(75.8)	855(100.0)						
⑨무릎관절	90(10.5)	160(18.7)	122(14.3)	372(43.5)	131(15.3)	181(21.5)	170(19.9)	482(56.4)	854(100.0)						
⑩다리통증	55(6.4)	53(6.2)	47(5.5)	155(18.1)	166(19.4)	289(33.8)	245(28.7)	700(81.9)	855(100.0)						
⑪신경통	16(1.9)	24(2.8)	8(.9)	48(5.6)	205(24.0)	318(37.2)	284(33.2)	807(94.4)	855(100.0)						
⑫방광염	9(1.1)	18(2.1)	10(1.2)	37(4.4)	212(24.8)	324(37.9)	282(33.0)	818(95.7)	855(100.0)						
⑬신장염	60(7.0)	184(21.5)	177(20.7)	421(49.2)	161(18.9)	158(18.5)	114(13.3)	433(50.7)	854(100.0)						
⑭부종	9(1.1)	28(3.3)	37(4.3)	74(8.7)	212(24.8)	314(36.7)	255(29.8)	781(91.3)	855(100.0)						
⑮청각장애	8(.9)	32(3.7)	41(4.8)	81(9.4)	213(24.9)	310(36.3)	251(29.4)	774(90.6)	855(100.0)						
⑯속눈증	41(4.8)	60(7.0)	57(6.7)	158(18.5)	180(21.1)	282(33.0)	235(27.5)	697(81.6)	855(100.0)						
⑰눈병	19(2.2)	76(8.9)	74(8.7)	169(19.8)	202(23.6)	266(31.1)	218(25.5)	686(80.2)	855(100.0)						
⑱피부염	32(3.7)	75(8.8)	74(8.7)	181(21.2)	188(22.0)	267(31.3)	218(25.5)	673(78.8)	854(100.0)						
⑲월경불순	28(3.3)	43(5.0)	39(4.6)	110(12.9)	193(22.6)	299(35.0)	253(29.6)	745(87.2)	855(100.0)						
⑳냉과다	5(.6)	12(1.4)	6(.7)	23(2.7)	216(25.3)	330(38.6)	286(33.5)	832(97.4)	855(100.0)						
㉑배결핵	29(3.4)	49(5.7)	42(4.9)	120(14.0)	192(22.5)	293(34.3)	250(29.2)	735(86.0)	855(100.0)						
㉒신경쇠약	11(1.3)	14(1.6)	12(1.4)	37(4.3)	210(24.6)	328(38.4)	280(32.7)	818(95.7)	855(100.0)						
㉓고혈압	12(1.4)	29(3.4)	17(2.0)	58(6.8)	209(24.4)	313(36.6)	275(32.2)	797(93.2)	855(100.0)						
㉔디스크	9(1.1)	41(4.8)	33(3.9)	83(9.8)	212(24.8)	301(35.2)	259(30.3)	772(90.3)	855(100.0)						
㉕동상	22(2.6)	41(4.8)	29(3.4)	92(10.8)	199(23.3)	301(35.2)	263(30.8)	763(89.3)	855(100.0)						
㉖무기력증	5(.6)	6(.7)	4(.5)	15(1.8)	216(25.3)	336(39.3)	288(33.7)	840(98.3)	855(100.0)						
㉗진폐증															

정 즉, 현실적 잠재적 고용불안정에 직면하고 있다 그것은 한편으로 이 산업자체의 안팎의 재생산조건이 상대적으로 취약하고 불안정한 데 기인한다. 밖으로는 산업구조 조정때 따른 정책적 금융적 지원의 소외, 모든 중추관리기능의 서울집중과 부산지역개발의 소외 등 산업과 지역의 불균등발전의 구조적 확대, 부산의 탈공업적·서서비스도시적 성격의 강화와 일반적인 생산·재생산조건외 낙후성 등의 조건과 안으로는 이 산업의 자본의 유기적 구성의 저위와 노동집약적 성격, 시장·원자재 등의 대외의존성과 불안정성·해외자본수출 등의 조건이 그것이다. 다른 한편 이러한 객관적 조건과 함께 이 산업에 있어서 임금노동의 재생산조건외 취약성 곧 저임금·장시간노동·열악한 작업환경외 비인간적 노동조건, 전근대적 성차별적 노동통제와 여성노동운동의 취약성 자체 때문에 고용불안정은 한층 심각한 문제로 되고 있다.

고용안정은 여성노동자의 노동과 생활의 안정을 위해서 뿐만 아니라 부산지역 주종산업 자본의 안정적 재생산을 위해서도 필수적 조건이다. 부산지역 여성노동자의 고용안정과 고용성장을 위해서는 ①독점제벌의 주종산업에 대한 중점지원과 경제력의 서울집중을 줄이는 방향으로 경제정책의 기조가 전환되어야 하고 부동산투기등 자본의 기생적·투기적 성격이 단절되어야 하며 ②특히 부산지역 여성노동자의 고용안정과 고용성장자체가 산업정책과 지역정책의 우선적 과제로 되어야 하며 ③부산지역 주종산업에 대한 정책적 금융적 지원과 특히 이 산업·중소기업의 기술혁신을 위한 정책적 지원이 절실히 요청되며 ④여성노동자의 열악한 노동조건에 의존하는 경영체제로부터 고임금과 노동조건외 개선에 기초해서 기술혁신과 노동생산성 향상을 기조로 하는 경영체제로 전환되어야 하며 ⑤이를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자주적 민주적 여성노동(조합)운동의 주체적 역량이 성장해야 하며 이를 위해 부산지역의 모든 노동운동의 역량이 집중되고 주민운동이 이를 보완해야 할 것이다.

(2) 노동시간의 단축과 생활임금의 보장

부산지역 신발·섬유·의류산업 여성노동자들은 과중한 잔업과 철야노동·특근 등과 약 9시간에 가까운 사실상의 표준노동시간으로 인하여 전국에서 가장 긴 장시간노동에 시달리고 있다. 이같은 장시간노동문제는 저임금문제와 함께 부산지역여성노동자의 노동과 생활의 모든 문제가 집중적으로 표현된 것으로 여성노동자의 안전과 건강을 침해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작업장 바깥의 사회생활을 소외시키고 모성의 파괴와 인격자체의 비인간화를 초래한다는 점에서 여성노동자가 당면한 절실한 문제라고 할 수 있다. 물론 장시간 노동문제는 저임금 문제와 표리관계에 있는 것이므로 생활임금의 보장을 전제로 한 노동시간

의 단축이 민주적 노동정책 또는 당면 노동운동의 실천과제로서 무엇보다도 중시되어야 한다.

노동시간단축을 위한 당면과제는 ①기업내 관행으로 되어 있는 사실상 1시간이상 연장되어 있는 표준노동시간을 법정표준노동시간으로 단축시킬 것, ②연장근로관행의 강제성을 배제하고 자율성을 확보할 것, ③주당 44시간 법정노동시간 준수를 위한 준법투쟁, 중식시간과 작업중 휴식시간의 충분한 확보, ⑤학생노동자의 경우 아동노동보호와 학습권보장의 차원에서 잔업 및 철야노동의 완전폐지 ⑥생활임금보장운동과 유기적으로 결합되는 노동시간단축운동으로 잔업·철야노동을 폐지할 것 등이다.

부산지역 여성노동자의 당면임금문제는 ①실질적인 최저생계비의 보장과 이에 기초한 최저임금제의 확보, ②여성노동력의 재생산비용에 대한 평가기준은 가계보충적인 노동 또는 단신근로자개념이 아니라 최소한 2인가족 기준의 생계비로 할 것, ③기계화·자동화에 의한 노동생산성과, 각종 생산성향상운동에 의한 생산성 성과를 직접적인 임금인상으로 흡수할 것, ④생산직여성노동자에 대한 직급부여와 성별 직종·직능·직무차별의 폐지와 승진·승급의 보장, ⑤기본급에 의한 생활임금확보와 이를 위한 기본급 중심의 임금인상, 각종 수당지급에서의 성차별관행의 폐지, ⑥월급제원칙의 보장, ⑦기혼여성노동자의 근무경력인정의 제도화, ⑧부산지역 신발·섬유의류산업 여성노동자의 경우 동일업종, 동일기업내의 성별 동일 노동·동일임금원칙보다도 상이한 업종간 성별 동일노동·동일임금원칙이 중시되어야 할 것 등이다.

(3) 노동과정의 민주화

부산지역 신발·섬유·의복산업의 노동통제과정은 여전히 전근대적인·전체적 지배와 온정주의적 가부장제적인 성차별과 억압, 군사문화적인 강제성 등이 주요한 흐름이라 할 수 있으며 최근 점차 인간관계를 중시하는 노무관계방식이 도입되고 있다.

노동통제과정의 민주화과제는 ①여성노동자에 대한 출퇴근시의 몸검사, 일상적인 욕설, 구타, 성희롱과 폭력 등의 비인간적 인권유린 관행의 청산과 이를 위한 사회적 문제제기, ②생산작업에서의 수직적 성별 분업구조의 개선과 여성노동자에 대한 직급·승진·승급제도의 보장과 이를 통한 여성노동자 중심의 현장노동관리체제의 구축, ③조반장, 주임 등의 자의에 의한 시급조정 및 수당결정관행의 개선 곧 조반장의 자의적 작업평가관행의 시정과 시급조정과 수당결정에 있어 객관적인 합리적 기준의 확보, ④온정주의적 인간관계에 기초한 노무관리관행의 극복과 주체적·민주적 인간관계의 지향 등이다.

(4) 생산성 증대와 노동 강화문제

최근 대상 업종의 자본에 의한 생산성 향상의 중심은 기계화와 자동화를 통한 '노동' 생산성의 증대에 있다기보다는 오히려 기계화·자동화와 관계 없는 물적 생산성의 증대에 있다. PQM등 각종의 이른바 '생산성향상운동'의 핵심은 '피맘짜기작전'이라는 말이 보여주듯이 노동강도의 강화와 노동시간의 연장에 의한 절대적 잉여가치생산의 증대에 있다. 뿐만 아니라 부분적으로 추진되고 있는 자동화와 기계화는 노동생산성을 증대시키는 반면 인원감축과 함께 노동시간의 연장과 노동강도의 강화를 수반하고 있다. 더구나 기계화·자동화에 의한 노동생산성의 성과나 '생산성향상운동'의 성과에 상응하는 분배는 거의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 요컨대 ①기계화와 그리고 '생산성향상운동'에 따르는 노동강화문제는 부산지역 여성노동자가 당면한 주......로서 인식되어야 하며, ②이러한 노동강화의 지양문제는 민주적 노동정책 또는 노동운동의 중요한 당면과제로 되어 있는 것이다.

(5) 취업관행의 제도적 개선

부산지역 신발·섬유의복산업 여성노동자의 취업관행은 연고채용과 공공직업안정기구의 역할부재, 전근대적인 근로계약, 합리적이고 민주적인 노사관계의 확립 등을 저해하는 중요한 한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다. 민주적 노동정책 또는 노동조합운동은 이러한 개별적이고 우연적인 취업관행을 지양하고 노동조합 또는 공정한 객관적인 공공기구의 개입에 의해 노동력의 수요자와 공급자간의 대등한 관계를 제도적으로 보장하는 정책대안을 강구하여야 할 것이다.

(6) 여성노동자를 위한 공공직업훈련기구의 설치

부산지역에서 여성노동자의 노동시장참여는(특히 기혼여성의 참여) 크게 확대되고 있으며 그 비중은 점차 커지고 있다. 다른 한편 여성노동자는 고용불안정성에 직면하고 있다. 그러므로 노동시장정책의 일환으로서 부산지역 여성노동자의 노동력육성을 위한 대규모적인 공공직업훈련기구의 설치가 절실히 요청되고 있다.

(7) 모성보호 및 평생노동권의 확보

여전히 저임금, 장시간노동, 높은 노동 강도, 열악한 작업환경 등으로 특징지어지는 부산지역 신발·섬유의류산업의 여성노동자들의 비인간적인 상태와 기혼부인 노동자의 급증 추세에 비추어 볼 때 생리휴가제는 물론 산전·산후휴가제, 유급수유시간의 확보, 육아휴직제도, 탁아제도 등의 측면에서 실질적인 모성보호정책이 학생노동보호정책과 함께 시급한 과제로 제기되고 있다. 이는 단지 모성보호를 위해서 뿐만 아니라 여성노동력의 공급 증대와 질적향상, 평생노동권의 확보를 위해서도 절실히 요청되고 있는 것이다.

(8) 부산지역 여성노동문제의 해결을 위한 범시민운동의 전개

이미 살펴본 바와 같이 부산지역 신발·섬유의류산업 여성노동자의 저임금, 장시간노동, 높은 노동강도, 열악한 작업환경, 전근대적·비민주적·성차별적 노사관계, 각종 인권유린과 무권리상태는 지극히 심각하다. 그러나 여성노동운동은 취약하고 이 문제는 노동정책으로부터 소외되고 있는 것이 엄연한 현실이다. 그러므로 부산지역 여성노동문제를 범시민적차원에서 사회문제로서 제기하고 민주적 노동정책과 여성노동(조합)운동의 성장을 뒷받침하기 위해 조직적이고 지속적인 범시민운동의 전개가 절실히 요청되고 있는 것이다.

[註]

- 1) 계급모순과 성모순의 결합에 의해 여성노동자에 가해지는 성폭력과 여성의 인권유린에 대하여 조순경, 여난영, 이숙진, '여성노동과 성적통제', "한국여성학 제5집", 1989, 참조.
- 2) 황한식, 독일경제학자들의 연구와 실천, 농어촌 사회연구, 한국 농어촌 사회 연구소 및 창조적 실천을 위한 과학적 연구의 발전을 위하여 "동향 3집", 지역사회자료문제연구실 1989, 2. pp. 3~7.
- 3) 부산지역 여성노동문제를 포함하는 연구로서는 영남산업연구원, "부산지역 근로자실태에 관한 설문조사서", 1984.
황한식, "부산지역 노동시장의 구조에 관한 연구", 부산경제연구총서 18. 부산상공회의소, 1982.
지역사회문제자료연구실, "80년대 부산지역 노동운동", 1989.
한국기독교 사회문제 연구원, "부산지역 실태와 노동운동", 민중사, 1986 등이 있다.
- 4) 부산상공회의소, 산업환경변화와 부산 중소기업의 대응방향, 1990. 10. pp. 30~33.
- 5) 도산업체수는 이를테면 87년 64개 업체, 88년 74개 업체에 이른다(부산상공회의소)
- 6) 이를테면 신발산업의 제조원가 노무비구성은 1988년 현재 22.6%이나 제조업 전체적으로 보면 9.9%이다.(한국은행, 기업경영분석)

- 7) 이를테면 1988년 9월 현재 제조업 월평균 임금이 377,535인 데 비해 신발산업의 경우 264,235원에 불과하다.
- 8) 한국 신발자본의 대외자본수출은 주로 인도네시아, 태국, 필리핀, 자마이카, 방글라데시로 향하고 있으며 총 23건에 이른다(한국 신발수출조합, 신발업계의 해외 진출현황, 1989, 6월현재)
- 9) 지역사회문제자료연구실, 80년대 부산지역 노동운동 1989, pp.106~109.
- 10) 황한식, 부산지역 노동시장의 구조에 관한 연구, 1982. 부산상공회의소 pp.114~120.
- 11) 실제로 컨베이어시스템에 배치된 여성노동자들과의 인터뷰에 의하면 능률이 낮은 작업시간의 초기에는 컨베이어를 천천히 돌리다가 식사시간전이나 퇴근시간직전에 빨리 돌리는 등 작업속도가 시간대별로 조절되는 사례가 많다고 한다. 따라서 이전의 바구니세트 작업보다도 훨씬 노동강도가 강화되고 노동자의 신체적 정신적 피로가 커진다는 것이다.

참 고 문 헌

- 강인순, 마산, 창원 노동자계급가족의 경제활동 실태”, “사회연구” 4집, 경남대학교 사회학과, 1990
- 김용문, “한국신발산업의 성격에 관한 고찰”, 부산대학교 대학원 경제학과 석사논문, 1990
- 노동부, 여성과 취업, 1989
- 부산상공회의소, 부산지역 공업구조 고도화 대책에 관한 연구, 1987
- 부산지역 신발산업의 현황과 발전방향, 1989
- 부산지역 의류산업 경영실태와 육성방안, 1989
- 산업환경변화와 부산 중소기업의 대응방향, 1990
- 부산지역 유통통계 자료집, 1990
- 부산지역 수출현황, 1990
- 부산지역 유통업 발전과정, 과제 육성방안, 1990
- 부산지역 제조업체 현황, 1989
- 부산지역 경제지표, 1988
- 영남 산업연구원, 부산지역 근로자실태에 관한 설문조사서, 1984
- 여성사 연구회, 여성 3집 창비사, 1989
- 조민희, 중소기업 존립형태에 관한 일 연구, 부산대학교 대학원 경제학과 석사논문, 1990
- 조순경, 여성노동과 성적 통제, 한국여성학 제5집, 1989
- 지역사회문제자료연구실, 80년대 부산지역 노동운동, 1989
- 동향 3집, 1989
- 한국기독교 사회문제 연구원, 부산지역실태와 노동운동 민중사, 1986
- 한철완, 한국 신발산업의 국제경쟁력 비교분석, 부산대학교 대학원 경제학과 석사논문, 1990
- 황한식, 부산지역 노동시장의 구조에 관한 연구, 부산경제연구총서 18, 부산상공회의소, 1982